태국 개황

2019. 8



외 교 부


Kingdom of
Thailand
Bangkok

태국 국기



- 태국의 국기는 청색·흰색·적색 등 삼색으로 구성되며, 청색은 국가원수인 국왕을, 흰색은 불교를, 적색은 국민의 피를 상징
- 태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왕·불교·국민을 표현하며, 불교를 정신적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피로써 국왕을 수호한다는 의미
- 1917년 현 짜끄리 왕조의 6대 왕인 라마 6세 때부터 태국 국기로 사용

태국 국가 문장



- ‘가루다’라고 불리는 독수리 모양의 새는 번영의 신의 상징이자 시공을 초월한 전설의 새이며, 태국에서는 국가와 왕실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상

목 차

Ⅰ. 개 관

1. 개 관 10

Ⅱ. 약 사

1. 민족의 기원과 이주 14
2. 수코타이 시대(Sukhothai, 1238~1378) 15
3. 아유타야 시대(Ayutthaya, 1350~1767) 16
4. 톤부리 시대(Thon Buri, 1767~1782) 18
5. 짜끄리 시대(Chakri, 1782~현재) 19
6. 제2차 세계대전과 태국 24

Ⅲ. 정 치

1. 정 체 28
2. 국가원수 31
3. 행정부 32
4. 의 회 34
5. 정당별 의석 분포 36
6. 사 법 38
7. 최근 국내 정치 정세 39

Ⅳ. 외 교

1. 기본 방향 및 시책 42
2. 국제협력 및 주요국과의 관계 44
3. 태국 소재 국제기구 현황 54
4. 태국의 재외공관 57
5. 태국 주재 외국 공관 57

V. 군 사

1. 개 관 60
2. 군사비 지출 현황 61
3. 군의 특성 61
4. 외국과의 군사협력 62
5. 군 주요 인사 63

VI. 경 제

1. 일반 경제 동향 66
2. 부문별 경제 현황 67
3. 교역 및 투자 71

VII. 사회·문화

1. 민족성 및 사회 관습 76
2. 종 교 78
3. 언 론 81
4. 문 화 83
5. 교 육 85

V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90
2. 정치·외교 관계 91
3. 주요 인사 교류 93
4. 군사 관계 100
5. 경제·통상 관계 100
6. 문화·관광 관계 105
7. 교육 협력 관계 108
8. 재외국민·영사 관계 111
9. 한-태국 조약 체결 현황 114

Ⅸ.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116
2. 정치·외교 관계 116
3. 경제·통상 관계 118
4. 협정 체결 현황 120
5. 주요 인사 교류 121

Ⅹ. 부 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26
2. 왕실 관계 132
3. 내각 명단 134
4. 역대 주태국 대한민국 공관장 136
5. 역대 주한 태국 공관장 137
6.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138
7. 주한 태국 대사관 139



I

개 관

Kingdom of Thailand

1. 개 관

- 국 명 :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
- 정 체 : 입헌군주제
  - 국가원수 : 와치라롱껀 국왕
    (H. M. King Maha Vajiralongkorn Phravajiraklaochaoyuhua)
  ※ 짜끄리 왕조 제10대 왕(2016.12.1 즉위, 2019.5.4~6 대관식 거행)
- 정치 형태 : 내각책임제
  - 총 리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 제29대 총리(2014.8. 취임, 2019.6. 재취임)
- 의 회 : 양원제 (상원 250명, 하원 500명)
  - 상원의장 : 폰펫 위칫촌라차이(Pornpetch Wichitcholachai)
  - 하원의장 : 추언 릭파이(Chuan Leekpai)
- 수 도 : 방콕(Bangkok, 인구 약 800만 명)
- 면 적 : 51.3만km^2 (한반도의 2.3배)
- 인 구 : 약 6,918만 명 (2018, IMF)
  - 인구증가율 : 0.46% (최근 10년)
  - 평균수명 : 남 71.9세, 여 78.5세
  - 남녀 성비 : 100 / 103.8
- 민 족 : 타이족 85%, 화교 12%, 말레이족 2% 등
- 종 교 : 불교 95%, 이슬람교 4%, 기독교 1%

• 언 어 : 타이어(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 문맹률 : 7.1%

• 경제 지표 (2018, IMF)

- 국민총생산 : 4,872억 달러
- 1인당 국민소득 : 7,187달러
- 교역 : 4,950억 달러 (수출 : 2,501억 달러, 수입 : 2,449억 달러)
- 외환보유고 : 1,970억 달러
- 총 외채 : 2,050억 달러
- 경제성장률 : 4.1%
- 물가상승률 : 1.1%
- 실업률 : 1.2%
- 화폐 단위 : Baht(바트) (1Baht = 100Satang)
- 환율 : USD 1=THB 32.3 (2018년 평균, World Bank)

• 주요 자원 : 천연고무, 타피오카, 주석, 텅스텐, 안티모니, 천연가스

• 기 후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며, 3계절로 대별

※ 3~5월 고온, 6~10월 우기(남부는 12월이 우기), 11~2월 비교적 저온

- 연평균 기온 : 28℃ (최고 32.5℃, 최저 23.7℃)
- 연평균 강우량 : 1,600mm
- 연평균 습도 : 79% (최고 94%, 최저 60%)

• 서울과의 시차 : -2시간

• 회계연도 : 10월~익년 9월

II

약 사

1. 민족의 기원과 이주
2. 수코타이 시대(Sukhothai, 1238~1378)
3. 아유타야 시대(Ayutthaya, 1350~1767)
4. 톤부리 시대(Thon Buri, 1767~1782)
5. 짜끄리 시대(Chakri, 1782~현재)
6. 제2차 세계대전과 태국

1. 민족의 기원과 이주

-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태국 지역의 수렵 채집 등 인류 거주 흔적은 약 18만 년 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기원전 4500년 전 태국 중부 짜오프라야(Chao Phraya)강 유역에서 거주하던 원주민이 쌀농사 시작

- 기원전 2세기경 성립된 힌두계의 푸난(Funan) 왕국이 현 캄보디아, 태국 지역 및 말레이 반도 북부에 걸쳐 영향력 행사
  - 6세기경 푸난 왕국 몰락으로 미얀마 남부의 몬(Mon) 왕국 및 메콩강 유역의 크메르(Khmer) 왕국 등장
  - 푸난 왕국 몰락 후 태국 중·서부 지역은 6~10세기까지 몬족의 불교 문화 타와라와디(Dvaravati) 문명이 지배

- 타이 민족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기원전 2세기경부터 중국 남서부 운남 지역에 거주하던 타이족이 중국계 난짜오(Nanchao, 南詔) 왕국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며 수세기에 걸쳐 남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태국 북부 및 라오스 북부, 미얀마 북동부에 걸쳐 부분적으로 소국가를 형성하였다는 중국 기원설이 유력

-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난짜오 왕국이 멸망하면서 타이족이 현재 태국의 짜오프라야강 유역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타이족의 여러 독립 소국가 등장
  - 중부의 수코타이 왕국(Sukhothai, 1238), 북부 치앙마이 지역의 란나 왕국(Lanna, 1292), 동북부의 란창 왕국(Lanchang, 1354), 남부의 나콘시탐마랏 왕국(Nakhon Si Thammarat, 13세기 중)

- 현재 태국 영토의 대부분은 14세기까지 크메르 영토였고 타이족은 크메르에 조공을 바치면서 거주하다가 1238년 수코타이 왕국을 건설하며 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남

2. 수코타이 시대(Sukhothai, 1238~1378)

- 타이 왕조사의 시초로, 13세기에 출현한 타이족의 소국가 중 중부 지역에서 번성
  - 1238년 타이족 일파의 수장 프라 루앙(Phra Ruang)이 크메르 왕국의 속국 지위를 거부하며 불교 국가인 수코타이 건국
  - 수코타이는 '행복의 시작'을 의미

- 3대 왕인 람캄행(Ramkhamhaeng) 왕 재위기간(1277~1317)이 최대 번영기
  - 크메르 문자를 변형하여 타이 문자 창제
  - 스리랑카의 상좌부불교를 적극 수용, 불법(不法)에 의한 통치자 '탐마라차(Thammaracha)'를 중시하여 후대 왕조의 이상적인 군주 개념으로 발전
  - 수코타이 제1비석에 '수코타이는 차야품(승리의 지역)으로서 전쟁 능력을 갖춰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며 천혜의 자연 환경 덕택에 식량이 풍부하다'는 내용 존재

- 총 9명의 왕이 약 200년간 통치했으며, 람캄행 왕 사후에 쇠퇴하다가 1378년 아유타야 왕조에게 멸망

3. 아유타야 시대(Ayutthaya, 1350-1767)

- 타이족 우텅(Uthong)이 크메르 왕국의 영향을 받아 1350년에 세운 국가로 417년간 지속된 태국 역사상 가장 오랜 왕국으로 15세기와 17세기에 동서를 잇는 무역 국가로서 번성
  - 불교 공인(1360) 및 법전 공포
  - 왕실 용어와 의전 등을 크메르에서 도입하여 채택
  - 중국에서 아유타야 지역을 시안(Xian)이라 불렀고, 포르투갈인들이 이를 시암(Siam)으로 불러 서양 국가 사이에 아유타야 대신 '시암'이라는 단어가 퍼짐

- 14~15세기 수코타이 등 중부 지역 국가들을 복속시키면서 연맹왕국 기반 조성

- 9대 왕인 뜨라이록(Trailok) 왕 재위기간(1448~1488)에 왕위 계승 원칙 확립 및 행정 관료 체제 정비
  - 말레이 반도와 벵갈 만까지 통치 지역 확대

- 15세기 아유타야의 번성기
  - 1511년 포르투갈과 무역 개시(총포 수입) 및 말라카 정복
  - 1516년 포르투갈과 통상조약 체결, 1592년 네덜란드와 통상조약 체결
  -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말레이 섬들 이외에 동서를 잇는 해상 교역로를 새로 건설하며 여러 시장을 연결하는 교역 중심지가 되면서 부를 축척

- 버마와의 전쟁
  - 13세기 말 버마족의 바간(Bagan) 왕국 붕괴 후 16세기 초 새로운 버마 왕조 성립

- 16세기 중엽 치앙마이 및 라오스 복속

- 에야와디(Ayeyarwady)강 하구 평야 지역의 항구도시로서 해상 교역을 바탕으로 발전
  - 버마는 동남아 지역 패권을 쥐기 위해 1563년부터 아유타야를 침공해 1564년에는 왕자인 나레수안을 볼모로 잡아갔고, 오랜 전쟁 끝에 아유타야를 복속시키고 마하탐마라차티랏(Mahathammarachathirat)을 통치자로 임명
  - 나레수안(Naresuan) 왕(1555~1605)은 9세 때인 1564년에 볼모로 버마에 붙잡혀가 8년 동안 생활한 후 17세 때인 1572년에 아유타야로 돌아가 버마와 전쟁 준비
  - 1583년 버마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난 상황을 틈타 나레수안 왕은 준비해 둔 군대를 일으켜 버마군을 축출, 1584년 독립을 선언하고 아유타야 왕국을 재건

- 서양과의 접촉
  - 나라이(Narai) 왕 재위기간(1657~1688)에 서양과의 접촉 활발
    - 일본·네덜란드·영국 상인에게 무역 허용
    - 네덜란드, 프랑스, 페르시아와 외교 사절 교환
  - 외국인을 활용하여 이득을 취함
    - 말레이인·인도인·포르투갈인·일본인을 왕궁 경비를 위한 용병으로, 중국인·페르시아인을 무역 담당 관료로, 네덜란드인을 선박 건조공으로 고용
    - 네덜란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선교 활동을 허락하는 등 프랑스와 협력 관계 유지
  - 나라이 왕 사후 보수 귀족 및 불교도들이 프랑스 선교사 처형 및 외국인 추방, 폐쇄 체제 유지

- 아유타야 왕조의 재번영
  - 나레수안 왕 이후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서 군대가 해체되고 경제와 무역 중시
  -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 동서를 잇는 항구 도시로 재번영

- 전쟁을 위한 재정 지출 감소 및 상업으로 축적한 부를 통해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과 사원을 건립하면서 건축이 발달
- 왕실은 신과 왕을 칭송하는 내용의 시와 시조, 연극 창작을 장려하여 문학과 예술이 발달
- 쁘라삿텅(Prasat Thong, 1639~1656) 왕은 인도 브라만교의 브라만 개념과 불교의 법왕(法王)을 왕실 전통에 혼합시켜 왕권을 강화
- 아유타야 왕실은 '싹디나'라는 토지 분봉제를 시행하여 충성의 대가로 귀족에게 계급별로 토지를 하사하고, 귀족은 토지를 매개로 농노의 노동력을 확보

• 아유타야 왕조의 멸망

- 아유타야 왕조의 내부 혼란을 틈타 버마군이 1765년 침공, 1767년 멸망
- 아유타야 왕조 멸망 후 태국은 상당 기간 정치적 분열 및 혼란기

4. 톤부리 시대(Thon Buri, 1767~1782)

• 중국계 조주족 상인 출신인 딱신(Taksin) 장군은 아유타야 귀족 가문, 중국인 상인 등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여 버마군을 몰아낸 후 짜오프라야강 하구 서안의 톤부리를 도읍으로 하는 왕국 건설

- 1768년 말까지 아유타야의 과거 영토 회복

• 1776년까지 딱신 장군은 타이왕국을 재통일하고 치앙마이를 정복하는 등 타이제국의 기반을 닦았으나, 400년간 이어져 온 아유타야의 절대 왕권을 버리고 평민 출신 혁명 지도자 속성을 중시하여, 반란을 일으킨 보수 성향의 귀족 출신 부하들에게 처형당함

- 딱신의 부하 장수이자 아유타야 귀족 가문 출신 텅두엉(Thongduang)을 왕으로 추대하고, 텅두엉의 아유타야 시대 관료 직명인 '짜끄리'를 왕조의 이름으로 사용

5. 짜끄리 시대(Chakri, 1782~현재)

• Rama 1세(Yotfa, 1782~1809)

- 타이족의 부친과 중국계 모친 사이에서 출생
- 방콕에 도읍을 세우고 아유타야 시대의 관제 및 지방 조직을 정비하여 이전 아유타야 전통 부흥 노력
  · 아유타야 전통 부활을 위해 이상적인 법왕이자 승려로 칭송받은 아유타야의 버롬마꼿(Borommakot, 1733~1758)의 즉위식과 동일하게 대관식을 준비
- 군을 조직하여 버마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바탐방(Battambang) 지역, 라오스의 비엔티안(Vientiane), 남부의 케다(Kedah)와 뜨랑까누(Trengganu)를 병합하면서 영토 확장

• Rama 2세 (Loetla Naphalai, 1809~1824)

- 라마 1세의 아들로 15년간 통치
- 왕실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탕(內帑, Privy Purse) 설립
- 영국인 외교관 크로퍼드(John Crawfurd)가 주도한 협상에 의해 1822년 영국과 처음으로 국제조약 체결

• Rama 3세(Nang Klao, 1824~1851)

- Rama 2세의 서장자

※ Rama 2세는 어린 적자인 몽꿋(Mongkut)을 보호하기 위해 낭 끌라오(Nang Klao)에게 왕위를 승계

- 중국계 이민자의 태국 내 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중국풍 양식이 반영된 불교 사원을 건설
- 1824년 영국-버마 전쟁 발발, 1826년 버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Burney 조약)하여 상호간에 법적으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

• Rama 4세 (Mongkut, 1851~1868)

- 낭 끌라오의 동생으로 형의 재위기간(27년) 동안 왕위 승계 갈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출가해 불교 경전과 서양 문물을 연구하며 생활
- 1855년 영국과 우호통상조약(Bowring 조약) 체결

• 영국이 1842년에 중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하자 태국은 중국과의 해상 무역이 중단되어 영국과 무역조약 체결 필요성을 느꼈고, 당시 홍콩에서 총독으로 있던 존 바우링(John Bowring)을 초청하여 통상조약 체결 협상 논의

※ 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비준 시 처음으로 '시암(Siam)'이란 국호 사용

• 중국은 150년간 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자 강대국이었지만, 바우링 조약으로 인해 태국 왕실과 지배층의 관심이 서양으로 바뀜.

- 1856년 미국·프랑스와 우호통상조약 체결
- 덴마크(1858), 벨기에·이탈리아·스웨덴·노르웨이(1862), 오스트리아·헝가리(1869) 등과 우호통상조약 체결
- 국내 정치·경제·종교 개혁 추진

※ 1956년 영화 <왕과 나>(영국인 가정교사 Anna Leonowens의 회고록)의 주인공으로 35명의 부인과 82명의 자녀를 둠

• Rama 5세 (Chulalongkorn, 1868~1910)

- 라마 4세의 아들로서 재위기간 42년 동안 근대 지향의 개혁정책 추진, 인재 등용(학교 설립)

- 어릴 때부터 서구 진보 사상을 직접 경험하고 태국에 가장 적합한 통치 체에를 연구하기 위해 제국주의 식민지를 방문하고 유럽 일부 국가의 헌법을 태국어로 번역

  ※ 라마 5세는 특히 나폴레옹 시대의 법에 가장 감명을 받고, '국토를 수호하고 왕실과 관료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무궁한 발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다짐

- 1868년 재위 당시(15세) 전통 보수주의 귀족들의 견제 때문에 원하는 개혁을 진행하지 못하자 장기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보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1874년에 추밀원과 국무원을 설립하고 왕족 중심의 인사 임명
- 1868년 노예제를 전면 폐지하려 하였으나, 귀족층의 반발로 점진적으로 부분 시행하다가 1897년에 이르러 전면 폐지
- 1868년 재정청을 신설하여 기존 17곳을 통해 분산되어 들어온 국가 세금을 일원화하여 국가 소득 증대
- 1870년대 후반 국고 수입을 바탕으로 왕실 근위부대를 창설하여 영국 보병 연대 방식으로 훈련·관리
- 1885년 부왕제를 폐지하고 왕세자제를 도입
- 1887년 12개 부로 구성되는 새로운 내각 제도 도입
- 1882년 영국·프랑스에 상주 공사 파견
- 1892년 법무부를 설립하여 여러 개 기관이 담당하던 모든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 통일된 사법 체계 마련
- 1893년 프랑스의 무력에 굴복, 메콩강 좌안을 프랑스에 양도하는 조약 체결
- 1894년 내무부를 설립, 이복동생인 담롱(Damrong) 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앙집권적 관료 모델의 국가 행정 개혁을 추진
- 1896년 영국·프랑스 공동선언으로 태국(Siam)의 중립지대화에 합의
- 1902년 국민개병제 및 1905년 현금 인두세제 도입
- 1907년 프랑스의 재침입으로 캄보디아 지역을 상실하고, 1909년에는 말레이 북부 4개 주를 영국에 양도
- 불교 개혁, 사원의 교육 기능 강화, 초등교육의 의무화 시도 등 개혁 정치 실시

• Rama 6세 (Vajiravudh, 1910~1925)

- 유년시절에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한 첫 왕으로 10년간 영국 유학 후 귀국하여 즉위(1차 대관식 1910년)
- 영국·러시아·그리스·스웨덴·덴마크·일본의 왕족들을 초청하여 1911년 제2차 대관식 거행 (13일 동안 국가 예산의 8% 소비)
- 타이 민족주의가 대두(반중국 운동으로 귀결)하여 민족주의 사관 역사서 편찬
- 왕의 세력 기반으로 군 조직 개편 (Wild Tiger Corps 결성)
- '국가-불교-왕' 이념 확립
- 1913년 성씨제도 도입·국적법 제정, 1916년 쭐라롱껀 대학 설립·국기 제정·여성 지위 향상·국가공휴일 제도 도입 등 근대화 개혁 지속 추진
- 1917년 4월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군으로 참전,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연맹의 창설 회원국이 되는 등 국제 위상 제고 및 불평등조약 타파 계기 마련 (1925년 영사재판권 및 관세자주권 회복)

• Rama 7세 (Prajadhipok, 1925~1935)

- Rama 6세의 동생으로, 태국 최후의 절대군주이자 최초의 입헌군주제 왕
- 정부 최고기관인 국가최고위원회를 설치, 재정난 등 내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1930년대 초의 세계공황 등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해 국왕이 임명하는 총리에 정부운영권을 위임하는 정부개혁안 발표
- 192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청년장교·관료들을 중심으로 국가체제 개혁 세력 인민당(People's Party) 결성, 1932년 쿠데타를 일으키자 입헌군주제 도입을 용인
- 1935년 3월 신병치료차 영국 체류 중 공식 퇴위 선언

• Rama 8세 (Ananda Mahidol, 1935~1946)

- Rama 7세의 조카로, 스위스로 유학 중 10세에 즉위
- 1945년 12월 귀국하였으나 1946년 6월 궁중에서 피살

• Rama 9세(Bhumibol Adulyadej, 1946~2016)
  - 형인 Rama 8세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여 19세에 즉위하였으나, 그 후에도 스위스에서 학업 계속
  - 1946년 라마 9세 국왕으로 즉위, 1950년 5월 대관식 거행
  - 태국 정부와 국민의 구심적 역할 수행
  - 1967년 이래 외국 방문을 중단하고 농촌복지사업 등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나, 2009년 9월 이후 건강 악화
  - 2016년 즉위 70주년으로 태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국왕이었으나, 그 해 10월 13일 승하(2017년 10월 장례식 개최)

• Rama 10세(Maha Vajiralongkorn Phravajiraklaochaoyuhua, 2016~현재)
  - 푸미폰 국왕의 장남으로, 푸미폰 국왕이 승하함에 따라 2016년 10월 13일 왕위 자동 승계(2016년 12월 공식 즉위)
  - 2019년 5월 1일 수티다 왕비와 결혼 후 5월 4~6일간 대관식 거행
  - 2019년 7월 28일 시니낫 후궁 공식 임명

6. 제2차 세계대전과 태국

- 피분(Pibun) 총리는 태국이 연합국(聯合國)과 추축국(樞軸國) 어느 한쪽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중립 외교를 펼치려 노력하였으나, 1941년 프랑스가 독일에 패하고 일본이 인도차이나에 침공해 오자 옛 시암의 영토였던 프랑스령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공격

- 1941년 태국-프랑스 전쟁에서 일본이 중재자로 나서서 태국 쪽에 유리하게 협상을 해주면서 일본에게 도움을 받고, 일본이 영국령 말레이 반도와 버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군의 무상 주둔과 통행을 요구하자 피분 총리는 이를 수락

- 1942년 피분 총리는 일본과 공수동맹을 체결하고, 영·미에 선전포고 후 군대를 동원하여 영국령 버마의 샨주(州) 침공
  - 피분 총리는 민족주의자로서 일본 세력을 업고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동남아 지역 패권을 쥐고자 하는 '大태국주의' 추구
  - 세니(Seni) 주미 태국대사는 미국에 대한 태국의 선전포고문 전달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항일 '자유태국운동(Free Thai Movement)' 결성

- 1943년 이후 전황이 일본에 불리해지자 일본은 총리를 태국에 보내 말레이 반도 4개 주와 미얀마 2개 주를 태국에 주겠다는 등 협력 관계 진전을 통해 지원을 얻어내려 하였으나, 태국 정부는 이를 거절
  - 미국 내 태국인들은 피분 총리의 암묵적인 지지 하에 '자유 태국 임시정부' 수립(미군과 합동으로 태국 내에서 반일 활동)
  - 태국 정부는 중국을 통해 연합국과 접촉하여 반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피력하기 시작하고, 1944년 8월 일본과의 전시협정을 파기

- 1945년 8월 對 영·미국 선전포고는 일본의 무력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선언
  - 쁘리디(Pridi) 중심 관료 세력은 당시 피분 중심 군사정부의 도움을 비공식적으로 받으면서 반일 운동을 진행해 왔으나, 연합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피분 총리를 해임하고 미국의 신임을 받으며 자유태국운동을 주도한 세니 주미국 태국대사를 1945년 9월 총리로 추대하여 전쟁 협상의 선두에 내세움

-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자진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패전국 대우를 면하고 1946년 12월 유엔에 가입

- 1950년 6·25전쟁이 벌어지자 연합국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엔 결의에 따라 즉시 파병



III

정 치

1. 정 체
2. 국가원수
3. 행정부
4. 의 회
5. 정당별 의석 분포
6. 사 법
7. 최근 국내 정치 정세

1. 정 체 : 입헌군주제

가. 1932년 12월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 헌법 채택

- 1932년 6월 청년장교 및 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쿠데타 발생, 입헌군주제 도입

- 1932~2006년까지 총 12차례 군부 쿠데타 발생
  - 1933년 4월 1일 입헌혁명 세력이 창당한 인민당 내에 경제개발 노선 방향을 둘러싸고 분열이 생겨 프라야 마노빠껀(Phraya Manopakorn)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 무효화
  - 1933년 6월 20일 프라야 파혼(Phraya Phahon) 및 군 수뇌부가 의회 개원과 헌법 재발효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킴
  - 1947년 11월 8일 해군 대장 핀(Phin)의 주도로 라마 8세의 죽음을 둘러싼 사회 분열 및 집권 정부 부정부패 의혹에 따른 혼란 해결을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킴
  - 1948년 4월 6일 군부는 1947년 쿠데타 이후 선거를 통해 총리가 된 민주당의 두엉(Duang)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총리를 교체
  - 1951년 11월 29일 군부의 지지를 얻어 총리가 된 장교 출신 피분(Pibun)은 1949년 헌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헌법을 무효화
  - 1957년 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부정한 권력이 개입하여 불공정 선거가 치러진 것이 발견되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1957년 9월 16일 싸릿(Sarit) 육군 사령관은 시민 편에 서서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와 갈등을 겪고 있던 피분 정권을 축출
  - 1957년 12월에 치러진 총선 결과 타넘(Tanom) 해·공군 대장이 총리로 선출되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회 통제가 어렵게 되자, 싸릿은

1958년 10월 20일 국내에 공산당 무리들이 활동한다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의회를 해산

- 1969년 치러진 총선에서 타넘 총리 겸 국방장관이 창당한 태국국민통합당이 승리하였으나,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보답을 해주지 않아 내부 분열이 지속적으로 발생, 외부 공산당의 위협을 빌미로 1971년 11월 17일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의회 해산
- 1974년 유혈사태 책임자인 타넘 전 총리가 해외 도피에서 돌아오자 대학생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극우 세력이 이들을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당시 민선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자 1976년 10월 6일 상앗(Sangad) 해군 대장은 사태를 막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킴
- 1991년 2월 23일 육군사령관 수찐다(Suchinda)는 당시 총리인 찻차이(Chatichat) 정부가 의회 독재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온바,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는 명복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당시 내각 20여 명의 재산을 압수
- 2006년 9월 19일 손티(Sonthi) 당시 부총리 겸 육군사령관은 탁신(Thaksin) 총리가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부정부패를 통해 부당하게 개인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킴

나. 2007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제17차 개정헌법 채택

-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 이후 과도정부가 설치한 헌법기초의회의 개정안에 대해 2007년 8월 19일 국민투표를 실시, 60%의 지지로 통과
- 2011년 제18차 헌법 개정을 통해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하원의원 수를 증원(480명→500명)
- 특히 총리의 연임 제한, 부정부패 방지, 총리 탄핵 제도 등 총리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 다수 포함

다.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

- 2013년 11월 탁신의 막내 여동생인 잉락(Yingluck) 총리가 탁신이 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 주는 사면 법안을 날치기식으로 통과시켜, 방콕 중심 중산층 시민들의 분노를 사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발생
- 2013년 12월 잉락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2014년 2월 총선에서 승리하였으나, 3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림
- 2014년 2월 선거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되고 반정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5월 22일 쁘라윳(Prayut) 육군사령관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
- 군부정권은 2014년 7월 22일 임시 헌법 공포
- 2014년 8월 31일 과도내각 출범
- 2016년 3월 29일 신헌법(안) 완성 및 8월 7일 국민투표로 확정
- 2017년 4월 6일 헌법 발효

라. 2019년 3월 총선 실시 및 새 민선 총리 선출

- 2019년 3월 24일 총선 실시
  - 친탁신계 프어타이당이 최다 의석, 친군사정부 팔랑쁘라차랏당이 최다 득표
- 2019년 6월 5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쁘라윳 총리를 새 총리로 선출
  (6월 11일 국왕 재가를 받고 공식 취임)

2. 국가원수 : 국왕

가. 기 능

-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통하여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행사
  - 태국 헌법 제1조 2항, '태국은 국왕이 국가원수로 존재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임을 명시
- 국왕은 불교와 종교의 수호자(헌법 7조)이며 군 최고통수권자(헌법 8조)
- 내각 및 18명 이내의 추밀원 위원, 각급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권위원회 위원, 반부패위원회 위원 등 임명
  - 추밀원은 1874년 라마 5세 때 설립된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유지 원칙(공직 금지)을 지키며 왕위 계승과 왕족법 등 왕실 관련 법규에 대한 견해를 국왕에게 제시

나. 국 왕 : His Majesty King Maha Vajiralongkorn Phra Vajiraklaochaoyuhua (마하 와치라롱껀 프라와치라끌라오짜오유후어)

- 1952년 7월 28일생
- 현 짜끄리(Chakri) 왕조 제10대 왕(라마 10세)
- 2016년 10월 부친 푸미폰 국왕의 승하 직후인 2016년 12월 왕세자인 와치라롱껀이 공식 즉위
  - 2019년 5월 대관식 거행

3. 행정부

가. 형 태 : 내각책임제

나. 내 각

- 구 성 : 총리 및 35명 이하의 각료(헌법상 국왕이 임명)
-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 이후 8월 31일 총 33인의 과도내각 출범
  - 총리, 부총리 5(장관 겸직 2인), 장관 21(총리실 장관 2인 포함), 부장관 8인
- 쁘라윳 총리(국방부 장관 겸직), 부총리 5(겸직 2인), 장관 20, 부장관 13인으로 구성된 내각이 2019년 7월 10일 국왕 승인을 얻음

다. 총 리

- 2019년 6월 5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실시된 공개투표에서 친군사정부 정당들이 추천한 쁘라윳 총리가 반군사정부 정당들이 추천한 타나턴 미래전진당 대표를 누르고 새 총리로 선출, 6월 11일 국왕 재가에 따라 공식 취임
  - 하원 500명과 상원 250명이 참석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2017년 신헌법에 따르면 총선에서 각 5%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들이 3명의 총리 후보자를 제출하고, 이 중 하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나, 2019년 6월 총리 선출 시에는 과도 조항(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 적용
  - 헌법 272조 과도 조항이 첫 의회가 출범한 후 5년간 적용

라. 지방행정

- 구 성 : 1개 특별시(Bangkok), 77개 주(Changwat), 1개 직할시(Pattaya), 795개 군(Amper), 7,255개 면(Tambon)

- 종 류 : 일반자치단체와 특수자치단체
  - 일반 자치단체
    - 도 행정기구 : 77개
    - 시청 : 30개
    - 군청 : 179개
    - 면청 : 2,233개 (도 행정기구장 관할)
    - 면 행정기구 : 5,332개 (군청장 관할)
  - 특수자치단체 : 방콕시, 파타야시

- 현행 헌법에 따라 모든 지방의회 및 행정단체장은 소속 정당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민선이며, 임기는 4년

- 행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후 해임안 논의 가능

-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Security)는 2017년 헌법 44조 특별명령 85호와 86호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출 관련 법규를 일시 무효화하고 총리가 직접 임명
  - 쁘라윳 총리는 부패 혐의로 직무정지된 쑤쿰판 전 방콕 시장을 파면하고 2016년 10월 아싸윈(Asawin Kwanmuang) 전 경찰대장을 방콕 시장으로 임명하였고, 2017년 2월 아난(Anant Charoengchari) 전 경찰소장을 파타야 시장으로 임명

• 2019년 7월 16일 새 민선 정부 공식 출범에 따라 국가평화질서위원회는 해체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로 지방의회 및 행정단체장 선거 진행 예정

- 태국 역사상 최대인 약 8,400개의 지방의회와 행정단체장 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선거를 진행할 가능성 제기

4. 의 회

가. 상 원

1) 구성 및 선출

• 2017년 헌법의 과도기 조항에 따라 총선 후 5년간은 250명으로 구성 (그 이후에는 200명으로 구성)

-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에서 전원 임명 후 국왕 재가

• 50명은 전문가 그룹에서 선발

• 6명(국방부 사무차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군최고사령관, 경찰청장)은 자동 임명

• 피선거권 : 특정 분야 경력을 10년 이상 갖고 있는 40세 이상의 태국 국적자

2) 임 기 : 5년

3) 의장단

-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Senate) 및 상원부의장(2명 이하)으로 구성
  ※ 상원의장은 의회 부의장 겸임

4) 주요 권한

- 총리 선출 투표권
  ※ 2016년 8월 7일 국민투표 결과 신설
- 하원 발의 법률안 및 상정안 심의
- 각종 감찰기구 위원 임명권
- 각료·정무직 공무원, 헌법재판소장, 행정재판소장, 검찰총장, 하원 의원의 비리 조사 요구권

나. 하 원

1) 구성 및 선출

- 500명의 의원으로 구성
  - 350명은 소선거구제에 의거, 보통선거로 직선
  - 150명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선출
    ※ 신헌법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득표를 정당 비례대표로 산정
- 피선거권 : 25세 이상 태국 국적자(승려 제외)

2) 임 기 : 4년

3) 의장단

- 하원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
  ※ 하원의장은 의회의장 겸임

4) 주요 권한

- 대정부 불신임권
- 주요 법률안 발의
-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5. 정당별 의석 분포(2019.3.24. 총선)

정 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Puea Thai Party	136	0	136
Palang Pracharath Party	97	19	116
Future Forward Party	31	50	81
Democrat Party	33	20	53
Bhum Jai Thai Party	39	12	51
Thai Liberal Party	0	10	10
Chart Thai Pattana Party	6	4	10
New Economics Party	0	6	6
Prachchat Party	6	1	7
Puea Chat Party	0	5	5
Action Coalition for Thailand Party	1	4	5

정 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Chart Pattana Party	1	2	3
Thai Local Power Party	0	3	3
Thai Forest Conservation Party	0	2	2
Thai People Power Party	0	1	1
Thai Nation Power Party	0	1	1
People Progressive Party	0	1	1
Palang Thai Rak Thai Party	0	1	1
Thai Civilized Party	0	1	1
Thai Teachers for People Party	0	1	1
Prachaniyom Party	0	1	1
Thai People Justice Party	0	1	1
People Reform Party	0	1	1
Thai Citizens Power Party	0	1	1
New Democracy Party	0	1	1
New Palangdharma Party	0	1	1
총 계	350	150	500

6. 사 법

가. 연 혁

- 1907년 근대 사법제도 확립
- 1932년 헌법상 사법권 독립 명문화

나. 3심 제도

- 제1심
  - 중앙(14개소) : 민사재판소, 형사재판소, 간이재판소, 중앙소년재판소, 노동재판소, 조세재판소
  - 지방(119개소) :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 지방소년재판소
- 제2심(4개소)
  - 중앙 항소재판소 : 방콕 및 중부 지역 관할
  - 제1 지방 항소재판소 : 동북 지역 관할
  - 제2 지방 항소재판소 : 북부 지역 관할
  - 제3 지방 항소재판소 : 남부 지역 관할
- 최종심(1개소) : 대법원
  - 대법원장 : 칩 쫄라몬(Cheep Jullamon)

다. 헌법재판소

- 구성 : 헌법재판소장 포함, 재판관 9명으로 구성
  - 헌법재판소장 : 누락 마쁘라닛(Nurak Mapraneet)

• 임기 : 7년(재임 불가)

• 주요 권한

-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은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해 하원의장, 야당 대표, 상원의장, 총리, 대법원장, 최고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으로 구성된 회의 소집 가능
- 고위공무원의 해임권, 탄핵소추권
- 각종 조직 관련 법령의 합헌성 여부 판정
- 상·하원 의원, 각료, 선거위원회 위원 등 주요 정치인이 제출하는 재산 등록의 적합성 여부 판단
- 헌법 기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쟁의 판정 등

7. 최근 국내 정치 정세

• 2014년 5월 쁘라윳 육군총사령관, 계엄령 선포와 함께 쿠데타 선언

• 2014년 6월 쁘라윳 총사령관은 3단계 정치일정 로드맵 발표

- 임시정부 출범(1단계), 신헌법 제정 및 개혁 추진(2단계), 신헌법 확정, 총선 및 2015년 말 신정부 출범(3단계)의 시간 계획
- 2014년 7월 22일 임시헌법 공포

• 2014년 8월 입법의회 개원 및 33명의 임시 내각이 왕실 승인을 받음.

- 쁘라윳 육군총사령관 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의장을 과도정부 총리로 선출

- 2016년 3월 말 신헌법(안)이 완성되어 8월 7일 국민투표 통과, 확정
- 2016년 10월 푸미폰 국왕 서거 이후 국민의 애도 분위기 속에서 12월 1일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
- 2017년 4월 와치라롱껀 국왕이 헌법 재가, 관보 게재를 통해 신헌법 발효
- 푸미폰 국왕의 장례식은 2016년 10월 13일 서거 이후 공식 애도 기간인 1년이 지난 2017년 10월 25~29일간 5일장으로 거행(10월 26일 장례식)
-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인 2019년 3월 24일에 총선이 시행되어 친탁신계 프어타이당이 136석, 친군사정부 팔랑쁘라차랏당이 116석, 진보 정당 미래전진당이 81석을 차지한 반면 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53석에 그침
- 2019년 5월 4~6일간 라마 10세의 대관식이 개최되고 5월 7~8일 선관위는 3월 24일 총선 결과를 공식 발표
- 2019년 6월 5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친군사정부 정당들과 상원의 전폭적 지지 하에 쁘라윳 총리가 차기 총리로 선출
- 2019년 6월 11일 쁘라윳 총리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공식 취임
- 총리는 새 내각 구성 후 2019년 7월 10일 내각 명단에 대한 국왕의 재가를 받음

IV

외 교

1. 기본 방향 및 시책
2. 국제협력 및 주요국과의 관계
3. 태국 소재 국제기구 현황
4. 태국의 재외공관
5. 태국 주재 외국 공관

1. 기본 방향 및 시책

가. 기본 방향

- 신국제질서 수립에 적극적 역할 수행
  - 신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유엔·아세안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로 역할 증대 노력
  - 각종 국제·지역 분쟁에서 태국의 역할 증대 노력

- 역내 협력 체제 강화
  - 동남아 평화, 자유, 중립지대화 실현 노력 강화
  - 아세안에서의 주도적 위치 견지와 함께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에 따라 역내 문제 해결에서 아세안 중심성 추구
  - 아세안 회원국 및 역외 대화상대국과 정치·안보대화에 주도적 역할

- 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 이미지 고양 노력

나. 외교정책 기조

-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및 평화공존 관계 강화
  - 지역 안정, 안보, 번영 추구, 조약 및 국제법에 근거한 현안 해결 (국경 문제 등)
  -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주변국 공공·민간 부문과의 협력 증진

- 아세안의 단결 및 협력 주도
  - 경제·사회문화·안보 분야에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다양한 틀을 통해 아시아 여타 국가와 협력 증진

• 이슬람 국가 및 이슬람 기구와 우호협력 증진

- 태국 남부 지역 이슬람교도 소요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이해 증진

• 글로벌 이슈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 평화·안보 유지, 민주주의·인권·인도주의 증진,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여타 인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세계적 이슈에서 유엔 및 지역기구와 협력 강화

• 태국 정치·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제고

- 태국 및 태국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외국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증진

• 태국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

- 재외국민, 태국인 해외 노동자, 해외투자 기업 등 타이 커뮤니티 강화

• 국경 분쟁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 국경 분쟁 관련 외교정책 수립 및 이행에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

다. 쁘라윳 총리의 외교 활동

• 2014년 8월부터 총리직을 맡은 쁘라윳은 취임 이래 아세안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고,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일본·중국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동시에 ASEM, APEC,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등 다자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

• 2016~2017년간 77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G20 정상회의에 특별 초청되었으며, 2015~2016년간 아시아협력대화(ACD) 의장국으로 제2차 ACD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 증진 위해 노력

• 2018년 쁘라윳 총리는 호주(1.17. 아세안-호주 정상회의), 부탄(1.18. 양자회담), 인도(1.25. 아세안-인도 정상회의), 베트남(3.30.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캄보디아(4.5. MRC Summit), 싱가포르(6.5. 아세안 정상회의), 영국(6.20. 동부경제회랑 투자유치), 프랑스(6.23. 동부경제회랑 투자유치), 스리랑카(6.23. 경제협력), 네팔(8.30. 벵골만 국가 정상회의), 일본(10.8. 메콩-일본 정상회의), 인도네시아(10.11. ASEAN Leaders' Gathering), 벨기에(10.18. ASEM), 독일(10.30. 양자회담) 등 총 14개국을 방문하며 아세안 역내외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 발전 노력

- 태국은 2019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이라는 주제 하에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2019.6., 방콕)를 개최하고,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G20 정상회의(2019.6., 오사카)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 및 위상 강화 적극 추진

2. 국제협력 및 주요국과의 관계

가. 대 아세안 정책

- 1967년 아세안 결성 적극 참여 후 아세안의 결속 및 발전에 주도적 역할 추구

-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를 편입시키는 Greater ASEAN 구상 추진
  - 제5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1995.12., 방콕) 시 동남아 10개국 정상회담 개최
  - 아세안과 인도차이나, 미얀마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양자를 통합, 태국이 중심 국가가 되는 광역경제권 결성을 궁극적 목표로 추진

- 아세안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내 안보대화 관련, 아세안 제국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례 아세안 외무장관회담(AMM),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PMC) 등 정치·안보 협력을 위한 협의의 장을 확대, 역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아세안 안보포럼(ARF) 추진

- 1995년 12월 방콕 개최 제5차 아세안 정상회담 시 동남아비핵지대화 조약(SEANFZT) 채택 주도 후 비준서 기탁국으로서 조약 발효(1997.3.)에도 중심 역할

- ASEAN Vision 2020을 중심으로 한·아세안의 협력 강화 지지

- 2008년 7월부터 2009년 말까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통합에 주도적 역할 수행 노력

-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 관련,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개념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 역할 수행, 대외 관계에 있어 중국-아세안 조정국으로서(2012~2015) 남중국해 문제 등 조정 역할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30' 간 상호 보완 및 연계를 위해 노력

-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태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이라는 비전 아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역내 제4차 산업을 주도하고 환경과 인류안보 등의 국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

나. 주요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

1) 대 미국 관계

-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전 태국은 SEATO 가입, 미국 군사원조 접수, 미군기지 제공 등 동남아에서 미국 반공군사체제의 주요 역할 수행

- 그러나 1975년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동남아에서 미군 철수 추세에 따라 48,000명의 주태국 미군이 1976년 6월 완전 철수

• 끄리앙싹(Kriangsak) 정권(1976년) 이후 양국은 캄보디아 사태 및 베트남군의 태국 국경 침범 등 공산 위협 점증에 따라 안보협력 관계 강화

- 매년 합동군사훈련 코브라골드 실시(싱가포르·한국 등 참가)

• 1991년 2월 태국 군부 쿠데타에 미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640만 달러의 대 태국 군사·경제 원조를 중단하는 등 강경 반응을 보였으나 캄보디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과 미국-베트남 관계 개선에 관한 미국 측 입장 베트남 전달(1992.1.) 등으로 전통적 우호 관계 회복

• 1994년 10월 추안 총리 미국 방문 시 클린턴 대통령의 태국만 해상 지원기지 설치 협조 요청 거부 및 리비아에 대한 태국 근로자 송출 사건 등으로 잠깐 미묘한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유지

•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 관련, 태국이 자국 내 회교도를 의식하여 미국의 세계적 테러 예방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주며 2003년 3월 미국 주도 대이라크 전쟁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내 비판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2003년 6월 코브라골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유지

- 2003년 6월 탁신 총리 미국 방문,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2006년 9월 태국 군부 쿠데타 시 미국 정부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2,400만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연기

- 당시 양국 간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통상부 대표는 태국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이를 연기한다고 발표

• 2007년 12월 23일 태국 총선과 관련, 미국 정부는 주태국 미국 대사관의 성명을 통해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진 것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란다는 입장 발표

- 2008년 2월 태국 민주정부 수립 이후 군사지원 재개 합의
- 2008년 7월 부시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였으며, 2010년 7월 양국은 '제3차 태국-미국 전략대화' 개최
- 2011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잉락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최초로 양자회담 개최
-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은 군사원조(4.7백만 달러)를 중단하고 합동군사훈련(코브라골드) 규모를 축소하는가 하면, 선거를 통한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하면서 양국 관계 경색
-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쁘라윳 총리 간 전화 통화에서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초청
- 2017년 7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 이후 최초로 태국을 공식 방문하고 2017년 10월 쁘라윳 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태국-미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군사 쿠데타 이후 소원했던 대미 관계 정상화
- 2019년 4월에는 헤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태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 및 역내 주요 이슈 등 논의

2) 대 일본 관계

- 1887년 수교 이래 2차 대전 직후 일시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1952년 외교 관계 회복
  - 전통적으로 왕실 간 교류를 중심으로 우호 관계 유지
  - 일본은 교역·투자·경제원조 등 경제 관계 전반에 걸쳐 태국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

• 여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정치·외교적으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1991년 2월 태국 군부 쿠데타 관련, 일본이 태국에 대한 신규 원조(6억 달러 상당)를 중단함에 따라 관계가 일시 소원해졌으나 1991년 4월 이후 일본 총리와 1991년 9월 일왕 부처의 태국 방문으로 호전

• 2007년 11월 태국-일본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태국 경제동반자관계 협정(JTEPA)' 발효

• 2011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잉락 총리는 노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태국 홍수 사태 이후 민간부문에 대한 태국 정부의 지원 방안 등 협의

•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 이후 일본은 일부 서방 국가와 달리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양국 간 정상외교(2015.2. 쁘라윳 총리 일본 방문 등 5차례)와 고위급 외교(2015.11. 쏨킷 경제 부총리 일본 방문, 2016.5. 기시다 외교장관 태국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전통적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돈독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 견지

• 2017년 3월 아키히토 일왕 태국 방문, 2017년 6월 쏨킷 경제 부총리 일본 방문, 2018년 6월 고노 외교장관 태국 방문, 2018년 10월(제10차 일-메콩 정상회의) 및 2019년 6월(G20 정상회의) 쁘라윳 총리 일본 방문 등 고위급 교류 지속

3) 대 중국 관계

• 1975년 인도차이나 3국 공산화 이후 구소련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견제 일환으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 추구(1975.7. 외교 관계 수립)

•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및 점령 이후 태국의 대 베트남 및 캄보디아 정책에 공동보조 유지
  - 베트남의 태국 침공 시 중국 개입 약속

- 군사 부문에서 1986년 이후 태국의 군장비 현대화 계획 관련, 중국이 T-69 전차·장갑차·야포·군함을 낮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중국은 태국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

- 1991년 2월 태국 군부 쿠데타 발발 시 중국이 군부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태국 군부 및 정부와 돈독한 유대 관계 형성

- 1994년 2월 이등휘 대만 총통의 사적 방문 허용으로 대 중국 관계에 일시적 마찰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곧 회복되었고, 1995년 7월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우호협력 관계 지속

- 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대만과는 경제·통상·문화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1개 중국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중국과의 유대 관계 강화에 진력
  - 대만 노동위원장(장관급) 방문비자 거부 및 '법륜공 인사' 추방 등 중국 요청 수용

- 2003년 2월 탁신 총리는 새로운 중국 지도부 출범 직전 중국을 전격 방문, 신·구 지도층과의 유대 관계 확인

-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태국 내 사안이라고 언급하고 태국의 화합과 번영을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 여타 국가와 다른 태도 견지

- 2011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잉락 총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고위인사 교류 확대, 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 증대, 태국 내 중국 투자 확대 등 협의

- 2011년 12월 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태국을 방문, 지속개발협력 MOU, 수형자 이송조약, 2011~2013년 문화협력 행동계획, 해양협력 MOU 등 체결

• 2012년 4월 잉락 총리의 중국 방문 계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및 철도, 그린 에너지, 수자원 등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 협력 증진에 합의하였으며, 2012년 11월 원자바오 총리가 태국 답방

• 2013년 10월 리커창 총리가 태국을 방문, 양국은 2015년까지 무역액을 1천억 달러까지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전력·고속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 협의

• 2014년 5월 태국 내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연이은 양국 고위급 회동(2014.12. 리커창 총리 태국 방문 및 쁘라윳 총리 중국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기존의 경제 및 투자 중심의 관계에서 정치·군사 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

• 2017년 7월 및 2019년 2월 왕이 외교부장 태국 방문, 2019년 4월(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쁘라윳 총리 중국 방문 등 고위급 교류 지속

4) 대 미얀마 관계

• 태국의 대 미얀마 외교 기본 방향은 태국의 기본 이익, 즉 국경 안보 및 자원/에너지/국경무역 등 경제적 이익에 현상을 유지하는 한편, 미얀마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아세안·유엔 등 다자적 차원의 접근 선호

- 특히 태국은 미얀마 전체 수출의 약 50%, 전체 수입의 22%를 차지하는 미얀마 최대 교역국이며, 태국 총 전력의 약 20%를 미얀마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태국은 관광, 제조업,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약 74억 달러를 미얀마에 투자

• 1988년 9월 출범한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 관련, 미국 등 서방 제국의 대 미얀마 압력이 현 군사정부를 더욱 자극하여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서방과 별도로 독자적 포용정책 견지

- 1994년 7월 태국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시 의장국의 게스트 자격으로 아세안 외무장관회의(AMM)에 미얀마 초청
- 1996년 차왈릿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규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미얀마 공식 방문,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의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계기 마련

• 1991년 11월 이래 미얀마군의 태국 접경 거주 소수민족의 반정부 게릴라 투쟁 소탕작전 중 발생한 국경 충돌 및 태국군의 소수민족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2002년 5월 발생한 국경 충돌 사건으로 양국 국경이 폐쇄되는 등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국경을 전면 재개함으로써 양국 관계 정상화

- 2003년 2월 탁신 총리 미얀마 방문, 마약 근절 및 소수민족 문제 등 해결 위해 대 미얀마 협조 표명

• 2011년 10월 잉락 총리는 미얀마를 공식 방문하여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국경검문소 재개, 태국의 미얀마 다웨이 프로젝트 지원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2012년 1월 태국 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다웨이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미얀마 방문

•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총리는 2014년 10월 당시 아세안 의장국 미얀마를 첫 번째로 방문, 국경 지역 문제, 다웨이 프로젝트 활성화 문제 등을 협의

• 2016년 6월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이 태국을 방문, 미얀마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미얀마 난민 문제, 경제협력 등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 태국과 미얀마 공식 수교 70주년인 2018년 6월에 윈민 미얀마 대통령은 태국을 방문하여 쁘라윳 총리와 이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국경지대 무역 증대, 동-서 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등 전략적 동반자로서 공동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 2019년 3월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제2차 우정의 다리 건립식에 쁘라윳 총리와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만나 양 국가 간에 교통 물류와 인적 관광 교류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

• 2019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제34회 아세안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에서 태국으로 탈출해 온 미얀마 라카인주 로힝자족 난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경제협력 관계 확대 등 양국 협력 방안 논의

5) 대 캄보디아 관계

• 1991년 10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캄보디아 최고국민평의회(SNC)의 본격 가동에 따라 1991년 7월 SNC를 승인한 데 이어 1991년 11월 프놈펜에 대사를 파견하고 훈센 정부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

• 1993년 5월 캄보디아 총선으로 성립된 연립정부와 협조를 통해 선린우호 관계 유지

- 1994년 1월 추언 총리 캄보디아 방문
- 1995년 7월 캄보디아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
- 1997년 6월 차왈릿 총리 캄보디아 방문

• 2003년 1월 프놈펜에서 반태국 시위 발생,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 및 태국인 소유 사업체 다수가 파괴되는 사건 발생, 국경이 폐쇄되고 외교관계를 공사급으로 격하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캄보디아측이 피해를 보상하는 등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한 결과 2003년 5월 양국 관계 정상화

- 2003년 5월 탁신 총리와 훈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양국 합동각료회의 개최

• 1962년 ICJ는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프레아비히어 사원(Preah Vihear, 11세기경 크메르제국에 의해 건축된 힌두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하면서도 사원 주변에 대한 국경선 획정 판결을 내리지 않음

- 캄보디아는 ICJ 계류 중 청구 변경을 시도, 사원 귀속 문제에 더하여 사원 지역에 대한 국경선 획정 판단을 청구했으나, ICJ는 청구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

• 2011년 4월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 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수차례 발생하여 양국 국민 수십 명 사망

- 분쟁이 심화되자 2011년 4월 캄보디아는 ICJ에 1962년 판결 관련 사원 주변 지역의 영유권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 해석 요청
- ICJ는 2011년 7월 새로이 설정된 사원 주변 잠정 비무장지대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할 것과 아세안 틀 내에서 비무장지대에 인도네시아 옵서버의 접근 허용을 명하는 잠정 조치 판결

• 2011년 8월 출범한 잉락 정부는 이전 아피싯 정부와 달리 캄보디아와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

- 2011년 9월 잉락 총리는 캄보디아 공식 방문 중 훈센 총리와 양자 회담에서 ICJ 잠정 조치 판결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국경 문제를 양국 일반국경위원회(GBC)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

• 2012년 2월 양국 합동국경위원회(JBC) 개최, 국경선 획정 문제 및 항공사진 개발 문제 등 우호적인 협의 진행

• 2013년 11월 태국-캄보디아 국경지역의 프레아비히어 사원 문제에 대한 ICJ 최종 판결(캄보디아 영토로 판결)이 있었으나, 양국 간 충돌이나 긴장 없이 평화적 관계 유지

• 2014년 5월 태국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함에 따라 친탁신으로 알려진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와 긴장 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훈센 총리가 탁신파 지원을 단절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태국 군사정부와 관계에 성의를 보였고, 쁘라윳 총리가 2014년 10월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2015년 12월 훈센 총리가 태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름

• 2016년 아시아협력대화(ACD)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총리는 양국을 연결하는 육로 외에 철로를 건설하기로 합의

• 2017년 쁘라윳 총리는 프놈펜을 방문하여 훈센 총리와 양자 면담을 갖고, 2020년까지 양국의 국경지대 경제권을 발전시켜 교역량을 15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

• 2019년 4월 태국 정부는 1942년에 개통했다가 1973년에 중단한 태국-캄보디아 철로를 다시 건설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본 히타치 그룹에서 제조한 디젤전차(RHN) 1대(4칸)를 캄보디아에 주기로 하는 등 '철도 외교'를 통해 캄보디아와의 양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킴.

  - 당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과거 30년간 12명의 태국 총리와 이룬 양자 관계보다 쁘라윳 총리 집권 5년간 이룬 성과가 괄목할 만하며, 2019년 3월 24일 총선에서 쁘라윳 총리가 다시 집권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공개 지지 선언

3. 태국 소재 국제기구 현황(2019년 6월 기준)

가. 유엔기구 사무소

• 본 부(1개)

  -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ESCAP)

•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16개)

  - 식량 및 농업기구(FAO)
  - 국제노동기구(ILO)

- 국제통신연맹(ITU)
-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 유엔에이즈(UNAIDS)
- 유엔개발계획(UNDP)
- 유엔환경계획(UNEP)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유엔인구기금(UNFPA)
- 유엔아동기금(UNICEF)
- 유엔마약범죄국(UNODC)
- 유엔연구사업소(UNOPS)
- 만국우편연합(UPU)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관
- 국제전기통신연맹(ITU)
- 유엔여성기구(UN WOMEN)
- 유엔자원봉사단(UNV)

• 소지역 사무소(9개)

-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동남아지역 사무소
- 유엔사막화방지기구(UNCCD) 아시아지역 사무소
- 유엔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 아시아지역 사무소
- 유엔인권위원회(UNOHCHR) 동남아지역 사무소
- 세계식량계획(WFP) 지역사무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지역사무소
- 국제이민기구(IOM) 동남아지역 사무소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동남아지역 사무소

• 기타 : 국별 사무소(4개)

- 유엔인간거주센터(UN-HABITAT)
- 유엔훈련조사연수원(UNITAR)
- 국제금융공사(IFC)
- 세계보건기구(WHO)

나. 기타 주요 기구(15개)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공과대학(AIT)
-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 아시아·태평양체신협의체(APT)
- 아시아재보험공사(ARC)
- 세계은행(IBRD)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방콕지역대표단
- 국제적십자연맹(IFRC) 방콕지역대표단
-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지원 사무소
- 동남아수산개발센터(SEAFDEC)
-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 아시아·태평양 양식연계센터(NACA)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S)
- 국제이민기구(IOM) 동남아·태국 사무소
-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 동아시아 및 동남아지역 관할

4. 태국의 재외공관(2019년 8월 기준)

- 대사관 : 66개
- 영사관 : 29개
- 대표부 : 3개
- 경제통상실 : 1개

5. 태국 주재 외국 공관(2019년 8월 기준)

- 대사관 : 78개
- 영사관 : 15개
- 명예영사관 : 110개



V

군 사

1. 개 관
2. 군사비 지출 현황
3. 군의 특성
4. 외국과의 군사협력
5. 군 주요 인사

1. 개 관

- 국군통수권 : 국왕이 행사
- 국군 조직
  - 국방부 예하 총사령부, 육·해·공 3군으로 편성
  - 기타 내무부 산하에 국경 경비 위한 경찰 보유
- 병역제도 : 의무병역제 (2년간 복무, 추첨 방식)
- 국방비 : 70.0억 달러(2018) * 총 예산의 약 7.7%
- 병력 수준 : 총 병력 31.5만 명
  - 육군 : 19만 명 (9개 보병사단, 3개 기갑사단, 1개 특전사단, 1개 포병사단, 1개 방공포사단, 1개 공병사단, 4개 개발사단), 예비 20만 명,탱크 약 510대, 각종 포 약 470문
  - 해군 : 7.7만 명(3개 함대사, 1개 해병사단, 4개 해군기지), 예비 3만 명, 헬기 항모 1척, 호위함 10척, 미사일쾌속정 9척, 초계정 26척, 소해정 17척, 항공기 24대, 헬기 27대 등
  - 공군 : 4.8만 명 (3개 전투기 대대, 1개 지상공격기 중대, 2개 요격기 중대, 1개 정찰기 부대, 3개 수송기부대, 2개 헬기 대대)
  - 기타 : 1.8만 명 (국경 경비 경찰)

2. 군사비 지출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억 달러)	58.9	60.3	62.0	67.0	69.0	70.0
GNP 대비(%)	1.5	1.4	1.4	1.4	1.4	1.4

출처 : 태국 국방부

3. 군의 특성

- 형식적인 3군 통합군 체제
- 국왕은 상징적 군통수권자이며 실질적으로는 총리(국방장관 겸임), 부총리, 총사령관 및 각 군 사령관이 군사력 장악
- 국방부, 총사령부, 육·해·공 각 군이 국방 예산 및 대외 활동에 독립적 권한 행사
- 장교 양성 기간 : 7년
  - 예비사관학교(2년), 사관학교(5년), 예비사관학교 졸업 후 육·해·공·경찰사관학교로 이동
- 군 언론매체 보유 및 운영
  - 육군은 5대 주요 TV 공중파 채널 중 2개 소유, 1개 직접 운영
  - 201개의 중앙 및 지방 라디오 방송사 운영, 군 정책 홍보

• 지역사회 지원 활동

- 전역에 4개 개발사단(공병) 창설, 농촌지역 도로 건설, 대민 지원 서비스 등 활동 전개
- 개발의용대, 마을 단위 자위대 등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자위, 치안, 보건, 농사, 교육 등 주민 관리 및 봉사활동 수행
- 특히 이슬람 분리주의자 테러 활동이 활발한 남부 지역에 대민 치안 활동 강화

4. 외국과의 군사협력

• 1976년 태국 주둔 미군 철수 이후 미국과 군사적 유대가 약화되었으나, 마닐라 협정(SEATO 협약, 1954.9. 서명) 및 Khoman-Rusk 공동성명(1962.3.)에 의거한 미국의 방위 약속이 유효하므로 유사시에 군사적 지원 가능

- 현재 주태국 미국 군사고문단이 무기 판매, 합동군사훈련 등의 연락 및 조정 역할
- 안보 위협 대처 일환으로 1982년부터 미-태국 해군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
- 최근 미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으로 확대되었으며, 한국은 2010년 2월 해병대 1개 대대 및 LST 1척 최초 참가 이후 연례 참가

• 아세안은 회원국 간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보협력을 위해 ARF·ADMM+ 등 협의체를 운용하면서,

태국-말레이시아 합동훈련, 태국-인도네시아 해·공군 연합훈련, 태국-싱가포르 해·공군 훈련 등 회원국 상호간 쌍무적 군사협력 시행

5. 군 주요 인사(2019년 8월 현재)

- 국 방 장 관 : Gen. Prayut Chan-o-cha
- 방총사령관 : Gen. Ponpipat Benyasri
- 육군사령관 : Gen. Apirat Kongsompong
- 해군사령관 : ADM. Luechai Ruddit
- 공군사령관 : ACM. Chaiyapruk Didyasarin



VI

경 제

1. 일반 경제 동향
2. 부문별 경제 현황
3. 교역 및 투자

1. 일반 경제 동향

가. 개 관

- 태국은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온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 달성
  - 방대한 국토(51.3만km^2, 한반도의 2.3배),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건실한 농업 생산 기반, 역내 교역 확대,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등으로 경제가 급속히 신장하여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성장
  -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이며, 수출이 GDP의 약 59%를 차지하는 중진 개도국

- 다만 무역적자 확대, 과도한 외자 유입 및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단기 해외 자금의 급속한 유출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음.
  - 태국 정부는 IMF 구제금융 차입(172억 달러), 변동환율제 채택, 경제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이러한 노력으로 199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02년 이후 SARS, 쓰나미, 쿠데타 등의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의 성장률 유지

- 2007년에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 등으로 1%대 성장에 그쳤으며, 2009년에는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마이너스 2.3% 성장률 기록

- 2010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 증가, 수출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약 7% 성장하였으나, 2011년에는 10~11월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제조업 생산·수출 감소,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1% 이하의 성장에 그침

- 2012년 태국 경제는 홍수 피해 복구와 정부의 경기진작 조치에 힘입어 당초 정부 전망치를 뛰어넘은 7%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경기 진작책 효과 소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및 10월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 의회 해산 등 정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2%대 성장에 그침

- 2014년 들어서도 계속된 정치적 교착 상태가 5·22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안정을 찾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갔지만, 연간 1% 이하의 성장에 그침

- 2015년 이후 군정에 따른 사회 안정,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 수출 및 공공투자 증대, 관광객 증가로 인해 2016~2018년간 3~4%대 경제성장률 달성
  -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요인으로 성장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3%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부문별 경제 현황

가. 산업 구조

- 태국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온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비중은 확대
  - 태국은 전통적 농업국가로서 농림·수산업의 대 GDP 비중이 1950년대에 47%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8년 8.1%까지 하락
  - 제조업은 태국 경제의 근대화, 그리고 일본·미국·대만 등이 태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일이 가속화되면서 지속적 성장

- 관광 등 서비스·유통업도 꾸준한 성장 추세
- 2018년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농림·수산업이 8.1%, 제조업·건설업·광업이 32.0%, 관광·도소매·의료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분야가 59.9%를 차지

2018년 태국의 산업 구조

분 야	GDP 대비 비중(%)	노동력 투입 비중(%)
농 업	8.1	32.1
제조업	26.9	16.5
건설 및 광업	5.1	5.9
교통, 물류 및 통신	7.5	3.9
도소매 유통	16.5	16.5
기타 서비스	35.9	24.9

출처 : 태국 중앙은행

- 태국은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주요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아세안 내 허브화를 추진해 왔으나 원천기술 미확보, 숙련인력 부족 및 기술개발 등 혁신능력 한계로 애로

※ 7년간(2015~2021) 7대 투자촉진 분야 : 농업 및 농산품, 광물·도자기·기초금속, 경공업, 금속·기계·교통설비, 전기·전자, 화학·플라스틱, 종이, 인프라

- 태국은 2016년부터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의제로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중장기 전략산업으로 10대 미래 산업을 육성

※ 10대 미래산업 :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 ③ 고급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⑤ 미래식품 ⑥ 디지털 ⑦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⑨ 의료허브 ⑩ 항공·물류

※ 최근 10대 미래산업에 방산과 교육이 추가되어 12대 미래산업이라고도 불림

나. 물 가

-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통화가치 하락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이후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 저소득층 수도·전기 요금 지원 등에 힘입어 안정세 시현

- 2010~2012년에는 국제유가 등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내수 부진 등에 따라 2%대로 하향 안정화

- 2015년 이후 글로벌 유가 하락,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0.9%)를 보였으나, 2016년 들어 다소 안정세 회복

- 2017년과 2018년에는 유가·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각각 0.66%, 1.07%를 기록하면서 상승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1%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시현하여 태국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0.7~1.7%) 유지

다. 고 용

- 외환위기 당시 4%대까지 올랐던 실업률은 경제회복으로 꾸준히 낮아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4~1.5% 수준의 실업률 유지

- 2010년에는 7.5%에 이른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실업률이 1.0%로 낮아지면서 일부 업종에서 생산인력난 발생

- 2011년 홍수피해 복구 및 2012~2013년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확대로 0.7%의 낮은 실업률 기록

- 실업률은 2012년 이래 약 1.0% 정도로 안정적 수준 유지

※ 실업률 추이(%, IMF) : (2014) 0.8, (2015) 0.9, (2016) 1.0 (2017) 1.2, (2018) 1.2

- 태국의 낮은 실업률은 농업인구 비율이 높고, 노점상·오토바이 기사, 파트타이머 등까지 취업 상태로 간주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

라. 외채 및 외환보유액

- 외환위기 직전 1천억 달러를 상회하던 외채 규모는 계속되는 무역·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으로 지속적 감소
-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말 기준 1,970억 달러를 기록하여 외채 규모를 상회

마. 환율 동향

- 1997년 외환위기 시 외환평형기금에 의한 고정환율제를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 2001년까지 바트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 2006년 들어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태국의 무역·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라 지속적인 강세 기조를 유지하던 바트화는 2008년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라 약세
- 2011년 중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 119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라 바트/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평가절상
- 2012년 들어 홍수 피해 복구 및 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더불어 세계적인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 유입으로 바트/달러 환율 하락세 지속
- 2013년에는 무역적자 누적, 반정부 시위 등 정국불안 장기화와 미국 FOMC의 출구전략 개시 결정으로 평가절하가 계속되어 연말에는 30.7 바트/달러로 4년 만에 최고의 환율 기록
-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하반기에 미국 경기회복으로 조기 금리인상 우려감 등이 작용하면서 바트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

- 2015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가,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라 2016년에는 전년보다 평가절상
- 2017년 이후 바트화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낮은 금리 수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꾸준히 절상되어 2018년 말 달러화 대비 32.3바트 기록
- 2019년 7월에는 달러화 가치가 30.35바트까지 하락하여 바트화 강세가 지속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환율(연평균)	30.7	32.5	34.2	35.3	33.9	32.3

출처 : World Bank

3. 교역 및 투자

가. 수출입 동향

- 태국 교역액은 2014년 쿠데타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6년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 무역수지는 2011년 이래로 적자 상태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컴퓨터·보석·전기회로·플라스틱·기계류·고무·쌀·해산물·타피오카·설탕·닭고기·과일·새우 등 공산품과 농수산물로 대별

- 5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미국·일본·베트남·홍콩이며, 한국은 15위 (2018, IMF)

•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원유, 화학제품, 자동차, 철강, 전기회로, 보석, 전자제품, 컴퓨터, 곡물, 플라스틱, 과학 및 의료기기 등

- 5대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UAE이며, 한국은 7위(2018, IMF)

태국의 교역 현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교역액	474,516	453,190	413,031	408,865	459,632	494,985
수출	224,864	225,193	211,054	213,762	235,925	250,137
수입	249,652	227,997	201,977	195,103	223,707	244,848
무역수지	-24,788	-2,804	9,077	18,659	12,218	5,289

출처 : IMF

나. 외국인 투자

• 2014년 쿠데타로 인해 2015년에는 외국인 투자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2016년부터 회복 추세

- 제조업 분야 중에서는 자동차, 컴퓨터의 비중이 최고(2018년 기준)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분 야	2014	2015	2016	2017	2018
농림수산업	119	122	129	141	153
광 업	2,386	2,360	2,968	2,627	2,263
제조업	86,656	85,813	88,576	101,862	101,082
전기가스	1,567	1,466	1,462	1,489	2,914
건 설	1,285	1,297	1,427	1,437	1,586
도소매	14,604	15,245	14,569	17,589	19,055
교통·물류	2,136	2,181	2,136	2,301	2,142
숙박·식음료	1,198	1,385	1,495	2,559	1,816
정보통신	10,346	5,176	5,601	7,259	6,414
금융·보험	53,298	46,668	50,762	60,796	60,906
부동산	14,231	14,256	15,824	19,586	21,831
기 타	14,076	12,930	12,433	15,842	15,228
총 계	**201,909**	**188,904**	**197,387**	**233,487**	**235,390**

출처 : 태국 중앙은행



VII

사회·문화

1. 민족성 및 사회 관습
2. 종 교
3. 언 론
4. 문 화
5. 교 육

1. 민족성 및 사회 관습

가. 국왕에 대한 높은 존경심

- 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가 자식을 보살피는 온정주의적 통치로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인 법왕(法王)을 이상적인 왕으로 숭상

- 1932년 국가 정치 체제가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국으로 바뀐 뒤 국왕은 직접 정치에 나서지 않으나 국민은 여전히 국왕과 왕실에 충성심이 높음
  - 특히 라마 9세인 故 푸미폰 국왕은 몇 십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을 돌보고 왕실개발계획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존경을 바탕으로 국가 통합의 구심적 역할 수행

나.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사랑

- 19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 주변 지역에 대해 식민 지배 영역을 확장해 오자, 라마 5세는 근대화 개혁을 추진

- 근대화의 일환으로 1868년 라마 5세는 노예제를 폐지하고 국민에게 자유 신분을 보장해 주고, 종족을 막론하고 '타이어(Tai, 12세기 몽골족의 침입으로 동남아 전역에 다양하게 퍼진 타이족의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상이한 형태로 변화하였는데, 이들의 언어를 타이어로 통칭)'를 사용하며 태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태국인(Sanchat Thai-Thai Nationality)'이라는 민족·국가 일원의 지위를 부여
  - 1913년 태국 정부는 태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을 처음으로 성문화

• 태국인은 주변국의 침략 위협 속에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켜낸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며, 국가와 왕실에 대한 강한 사랑과 애착이 특징

다. 불교에 의한 가치관

• 태국인은 불교의 업보와 공덕, 윤회 사상에 대한 믿음이 강함
  - 태국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불교 가르침은 '선업선과(善業善果)', '악업악과(惡業惡果)'로, 현생에서 선행을 통해 공덕을 쌓으면 내세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불교 가르침에 반대되는 악업을 쌓게 되면 내세에 불행하게 된다는 믿음
  - 현생에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선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은 결과로 믿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업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 존재

• 불교 사찰은 전통적으로 태국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불교 가르침을 통해 사회 규범과 윤리 의식 함양 역할 수행

라. 주요 관습

•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모아 합장하는 자세로 인사하는 태국식 인사(와이)는 온화한 태도와 사회 예절을 중시하는 태국인의 국민성과 불교 관행이 생활화된 것으로, 상대방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손의 높이가 변화

• 왕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강하여 외국인이라도 왕실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은 엄금하며, 극장 등에서 국왕 찬가가 연주될 때는 기립하여 예의를 표하는 것이 관행

※ 오전 8시, 오후 6시에 국가가 울리면 하던 동작을 멈추고 국가가 끝날 때까지 차렷 자세 유지

- 왼손 사용을 부정하게 여기며 '존두천족(尊頭賤足)' 가치관이 생활에 널리 퍼져 있어 어린이라도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금물이고, 발로 사람을 가리키거나 물건을 건네는 등의 행위도 금물
  - 특히 앉을 때 발끝이 불상을 향하는 것은 절대 금물

- 불교의 영향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성씨 제도가 없었으며, 1913년에 처음 도입
  - 현재도 사람을 부를 때 성보다는 이름이나 별명을 주로 사용
  - 예를 들어 쁘라윳 찬오차 총리의 경우 쁘라윳 총리로 호칭

2. 종 교

가. 종교별 인구 비율

- 불 교 : 95%
- 이슬람교 : 4%
- 기독교(천주교·개신교) : 1%

나. 종교 정책

- 태국에서 불교는 오랜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의 철학으로 자리

• 왕실과 함께 불교는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 수행

- 태국 헌법 제7조에 국왕은 불교도이며 종교의 수호자임을 명시

•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나 불교 외의 교세 확장에 대해서는 신중

- 남부 3개 주의 이슬람 분리운동에 대해서는 국가적 일체성을 강조

※ 남부 3개 주는 2차 대전 이전에는 영국령 말레이에 속했으나 전쟁 후 태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민족적·종교적 차이로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최근 일부 과격한 무슬림들의 테러가 빈발

• 태국은 불교 가치관에 바탕을 둔 사회적 행동 규범을 국민에게 내재화하기 위해 불교 가르침을 교육 제도화하여 1921년에 처음으로 불교를 기초 교육 필수 과목으로 지정

다. 종교 행정 체제

• 태국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왕실의 종교인 불교의 위상과 명예를 유지하고 전국 4만여 개의 사원과 30여만 명의 승려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중앙집권형 행정 체제 도입

- 라마 5세는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를 교육에 활용하려 하였으나, 수도와 지방 사이의 승가 관행이 달라 일원화하고자 1902년 처음으로 '승가법' 제정
- 불교의 중앙집권화가 불교와 왕실을 하나로 일체화하게 만든 주요 계기

• 국왕이 임명하는 승왕(僧王) 1인과 20인 이하의 원로 승려로 구성된 불교최고원로회의(Sangha Supreme Council)에서 불교에 관한 모든 행정을 관리 감독

- 불교최고원로회의 아래 중부·북부·남부·동부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원로승려회(Chaokhanayai)가 있으며, 각각의 원로승려회는 약 15~20개 주의 행정을 담당

• 승려 간 위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왕이 수여하는 '싸마나싹(Samanasak)'이라는 일종의 계급제도(승왕을 정점으로 그 밑에 10단계의 직위로 세분화) 정비

라. 태국 불교의 특징

• 태국 불교는 상좌부불교로, 승려들은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른 수행과 실천 및 개인적 해탈을 중시

• 태국 불교의 업보와 윤회 사상은 태국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장려하고 악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도덕적 규범 기능

• 남자는 일생에 한 번 승려로 출가(보통 1~3개월)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신의 지난 과오를 깨닫고 불교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선인이 되는 과정

- 태국어에는 승려 수행을 하지 않은 남자를 '콘딥(Khondip, 무르익지 않은 사람)'으로, 승려 수행을 마친 남자를 '콘쑥(Khsosuk, 무르익은 사람)'으로 비유하며 남성이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통과의례로 간주
- 태국인은 아들이 승려로 출가하는 것을 공덕을 쌓는 행위로 믿고, 아들은 부모님께(특히 출가를 못하는 어머니에게) 길러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

• 전국에 4만여 개의 사원과 29만여 명의 승려가 있으며 사원·가정·사무실·상점에까지 불상을 모셔놓을 정도로 신심이 독실

• 불상과 승려가 신성한 존재로서 경의와 숭앙을 받으며, 불상 모독은 금물

3. 언 론

가. 언론 보도 정책

- 일부 지상파 TV는 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등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신문·잡지 등 기타 언론매체의 운영은 비교적 자유로움
  - 군 자체 지상파 TV방송사 운영(CH 5 TV)
  - 국영방송사(CH 9 TV)

나. 공보언론 행정 체제

- 왕실관보(Royal Thai Government Gazette) : 국왕의 명령과 정부의 법령 등 국가의 공적인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라마 4세 때부터 발간
- 공보 행정 : 총리실 공보실
  - Public Relations Department(PRD)
  - National Broadcasting Services of Thailand(NBT)
- 태국공용방송연합(Television Pool of Thailand) : 1968년에 설립된 국영방송연합으로, 왕실 의례와 국내외 공식 행사를 생방송으로 중계
  - Channel 3
  - Channel 5 (Royal Thai Army Radio and Television)
  - Channel 7
  - Channel 9(Mass Communications Organization of Thailand)
- 민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NBTC)의 관리 감독을 받음

• 내무부는 국내 언론 등록을, 외교부는 상주 외신 등록 및 국제 업무 담당

다. 주요 신문

• 종합조간신문 10종

- 타이랏(Thairath) : 구독자 수 1위, 중도 성향
- 데일리뉴스(Dailynews) : 보수 성향
- 내우나(Naewna) : 중도 성향
- 카우쏟(Khaosod) : 마띠촌 언론사그룹 계열 신문, 구독자 수 2위, 진보 성향
- 콤찻륵(Komchadleuk) : 네이션 언론사그룹 계열 신문, 중도 성향
- 마띠촌(Matichon) : 마띠촌 언론사그룹 대표 신문, 진보 성향
- 시얌랏(Siamrath) :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중도 성향
- 타이포스트(Thaipost) : 보수 성향
- 푸짯깐(Manager) : 보수 성향
- 미투에프(M2F) : 중도 성향

• 경제전문신문 8종

- 방콕투라낏(Bangkokbiznews) : 네이션 언론사그룹 계열 신문
- 카우훈(Khaohun) : 태국증권거래소의 주식 변화 중심 보도 신문
- 탄훈(Thanhun) : 태국증권거래소의 주식 변화 중심 보도 신문
- 탄세타낏(Thansethakit) : 네이션 언론사그룹, 3일에 1회 발간
- 쁘라차찻투라낏(Prachachat) : 마띠촌 언론사그룹 신문, 3일에 1회 발간
- 시얌투라낏(Siamthurakit) : 주간지
- 덕비야투라낏(Duckbiathurakit) : 주간지
- 딸랏위크러(Talatvikreo) : 월 2회 발간

• 그 외 스포츠신문 6종, 연예신문 4종, 영자신문 2종(The Nation, Bangkok Post), 지일본 방문간지 10종 발간

라. 텔레비전·라디오

- 지상파 TV : 채널 3, 5, 7, 9(MCOT), 11(NBT) 및 Thai PBS 등 6개사
- 디지털 TV : 48개 채널
- 케이블 TV : 572개 채널
- 라디오 : 국영 Radio Thailand(전국 네트워크) 등 3,482개 주파수

4. 문 화

가. 태국 문화의 특징

- 태국 문화의 기조는 인도·몬·크메르 문화가 융합된 것이며, 불교 문화는 인도·스리랑카에서 도입
- 태국은 최초 왕조인 수코타이 시대부터 1932년까지 절대군주 체제로, 크메르와 브라만 양식이 혼합된 궁중 문화가 발달
- 태국 종족은 11세기경 중국 서남단에서 현재의 태국 땅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나, 말레이 반도에서 북상을 했다는 설과 선사시대 이후 주변 종족들이 계속 이주해 들어와 구성되었다는 설도 있음
- 태국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가 사회 및 생활 문화의 저변 형성
  - 태국의 각종 건축·사원·미술·무용 등은 전통적으로 불교·크메르 문화·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짜끄리 왕조에 들어서 근대 유럽 양식의 영향을 받아 왕궁과 별장 등이 지어지기 시작
  - 태국은 불력 사용(서기 +543년)

• 태국의 서민 문화는 농경 사회에 기초하여 화합과 타협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확기 또는 공동 행사 시 노동력을 서로 제공하며 협동적으로 생활

나. 문화정책 기조

• 태국 정부는 1958년 8월 29일 문화부 산하에 문화진흥국을 설립하여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예술 창작 및 진흥 그리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노력

• 문화진흥국은 2020년까지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태국 국민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비전 및 4가지 실행 전략을 채택

- 전통 문화와 지역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 문화자본의 원천으로서 문화적 인적 자원 인력의 배출과 역량 강화
- 문화자원의 보호를 위한 경계 감시 네트워크 구축
- 문화 지식 관리와 연구 개발 진흥

다. 언 어

• 공용어는 타이어로 차이나-티벳어족에 속하며, 유형학 특징으로 중국어와 같은 고립어(Isloating Language)에 속함

- 1286년 수코타이 시대의 람캄행 대왕이 고대 크메르 문자를 모방해 제정
- 44개 기본 자음과 32개 기본 모음 및 4개의 성조 부호가 있으며, 10개의 태국 고유 숫자가 있음
- 세계적으로 타이어 사용자는 약 7,500만 명

라. 문화 및 관광·스포츠 업무 등 관장 행정관청

-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 문화정책 기본 방향 수립, 국제문화교류, 전통문화 보존 등 업무 관할
- 관광스포츠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 관광 및 스포츠 관련 제 업무 관할, 산하에 관광청(TAT) 존치

마. 방콕 소재 주요 문화 관계 국제기구

- UNESCO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본부장 김광조 前 교육부 차관보)

5. 교 육

가. 교육 행정

- 교육부
  - 기초교육위원회 : 초·중·고 국공립학교 교육 관장
  - 직업교육위원회 : 직업학교·전문대 교육 관장
  - 고등교육위원회 : 대학 교육 관장
  - 사립교육위원회 : 초·중·고 사립학교 교육 관장
- 지역 단위 공립 초·중등교육 담당 기관 : 185 Educational Service Area
- 교육부 예산 규모(2019) : 4,898억 바트(15,963백만 달러)
  - 태국 정부 예산의 약 16.3%, 태국 GDP의 약 3.8% 수준

나. 기초 교육

- 학제 : 6-3-3-4년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 학기 : 1학기(5월~9월), 2학기(10월 말~익년 2월)
- 유치원 교육 : 3~5세
- 초등교육 : 6~11세
  - 취학 연령 아동의 약 102%가 초등학교에 입학(2017)
- 중등교육
  - 중 학 교 : 12~14세, 약 90.6% 진학(2017)
  - 고등학교 : 15~17세, 약 71.1% 진학(2017)

다. 고등교육

- 고등교육기관 : 총 179개교(2017)
  - 국공립대학 85개교, 사립대학 74개교, 커뮤니티대학 20개교
    - 국공립대학(85개교) : 국립대 36개교, 랏차팟대 38개교, 랏차몽콧 계열대 9개교, 승가대학 2개교
- 학기 : 5월 신학기제에서 2014년부터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여 운영

라. 직업교육

- 직업교육 : 15~17세, 18~21세
  - 'College'로 통칭하며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정, 준학사과정, 학사과정의 3단계 직업교육·훈련 제공
- 직업학교 : 공립 429개교, 사립 484개교 등 총 913개 학교(2018)

마. 사립학교

- 국제학교 : 방콕 등 주요 도시에 영·미계 170여 개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
  - 한국계 국제학교 : 방콕한국국제학교(KISB, 2001년 개교)
- 일반 사립학교 : 대다수가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 실시

바. 방콕 소재 주요 교육 관계 국제기구

- UNESCO Bangkok(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방콕본부)
- SEAMEO(동남아교육장관기구)



VI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2. 정치·외교 관계
3. 주요 인사 교류
4. 군사 관계
5. 경제·통상 관계
6. 문화·관광 관계
7. 교육 협력 관계
8. 재외국민·영사 관계
9. 한-태국 조약 체결 현황

1. 기본 관계

- 1949. 10. 태국, 대한민국 정식 승인
- 1950. 11. 태국, 6·25전쟁 참전
- 1958. 10. 외교 관계 수립 (한국의 9번째 수교국)
- 1960. 2. 상주대사관 설치 합의
- 1960. 3.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개설
- 1961. 7. 주한 태국대사관 개설

태국군의 6·25전쟁 참전

1. 총 인원 : 15,708명

- 1950.11.7.~1953.7.17. : 6,326명 (사망 129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
  (육군 1개 보병대대, 프리킷함 7척, 수송선 1척, 수송기 1편대)
- 1953.7.17.~1972.7.25. : 7,015명 (육군 1개 중대 병력 유지)

2. 태국 참전 기념비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소재
태국 촌부리 6·25 참전부대(21연대) 내
태국 방콕시 소재

2. 정치·외교 관계

가. 개 관

- 태국은 6·25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견(1950.11.)한 전통적 우방으로서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등 주요 사안에 우리 정부 입장을 지속해서 지지
  - 남·북한 동시 수교국(1975.5.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 양자 관계는 물론 ASEAN, ASEM, APEC 등 다자 관계에서도 밀접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나. 양국 간 주요 정차외교 교류 현황

1) 한태국 정책협의회 및 한태국 공동위원회

- 1991년 이상옥 외무장관 태국 방문 시 아르사 외무장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합의
  - 1992년 12월 제1차 한·태국 정책협의회 개최(서울)
  - 1998년 6월 제2차 한·태국 정책협의회 개최(방콕)
- 1998년 7월 쑤린 외무장관 방한 시,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태국 공동위원회 설립협정 서명
  - 2003년 6월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 양국 외교부 고위급(차관/차관보) 정책협의회 개최
  - 2010년 6월 제1차 한·태국 정책협의회 개최(서울)
  - 2016년 3월 제2차 한·태국 정책협의회 개최(치앙마이)
  - 2018년 5월 제3차 한·태국 정책협의회 개최(서울)

2) 한·태국 군수 공동위원회

- 1991년 이후 연 1회

3) 우호협회 및 단체

- 의원친선협회
  - 2009년 7월 한국·태국 의원친선협회 구성(회장 : 황우여 의원)
  - 2011년 9월 태국·한국 의원친선협회 구성(회장 : 닌라완 상원의원)
  - 2010년 7월 우리 측 의원단 태국 방문
  - 2010년 10월 차이 태국 하원의장 공식 방한 계기 띠라 前 태국·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등
  - 2015년 5월 씨싹 태국·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 일행 방한
  - 2017년 8월 씨싹 태국·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 일행 방한
  - 제20대 국회 한국·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 : 최재성 의원
- 한·태국 상공회의소(Korean Thai Chamber of Commerce, KTCC)
  - 1977년 결성, 회원사 221개사
- 6·25전쟁참전용사회
  - 1952년 3월 24일 결성, 회원 약 4,000명
- 태국·한국 친선협회
  - 2011년 결성(회장 : 꺼싹 현 CP All 회장)

4) 다자회의를 통한 양국 간 고위 접촉

- ASEAN+3, EAS, APEC 및 ASEM 정상회의(정상, 외교장관 등)
- ASEAN PMC 및 ARF(외교장관 : 매년 7월)
- ACD 회의(정상급 또는 차관보급 이상)
- ESCAP 총회

다. 명예영사관 개설·운영

- 치앙마이 명예영사관 : 2007년 7월 20일 개설
  - 명예영사 : 와차라 딴뜨라논(Wachara Tantranont)
    ※ 2007.3.23. 최초 임명, 2013.4.10. 연임, 2018.4.9. 2차 연임

- 푸껫 명예영사관 : 2008년 7월 29일 개설
  - 명예영사 : 토사폰 텝파붓(Tosaporn Tephabutra)
    ※ 2008.1.28. 최초 임명, 2013.1.28. 연임, 2018.1.28. 2차 연임

3. 주요 인사 교류

가. 우리 인사 태국 방문

- 1966. 2. 박정희 대통령
- 1967. 9. 정일권 국무총리
- 1972. 5. 김용식 외무장관
- 1975. 4. 최경록 대통령 특사
- 1976. 6. 박동진 외무장관
- 1976. 6. 정일권 국회의장
- 1978. 3. 정일권 국회의장
- 1981. 7. 전두환 대통령
- 1983. 1. 이범석 외무장관

- 1984. 12. 이원경 외무장관 (비공식)
- 1985. 12. 신현확 부총리
- 1987. 2. 이재형 국회의장
- 1987. 4. 최광수 외무장관
- 1989. 3. 최호중 외무장관
- 1990. 2. 김재순 국회의장
- 1991. 7. 이상옥 외무장관
- 1991. 10.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
- 1992. 2. 이진삼 체육·청소년부 장관
- 1992. 9. 이상옥 외무장관, 한봉수 상공장관 (제4차 APEC 회의)
- 1992. 10.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 1992. 12. 박준규 국회의장
- 1993. 4. 한승주 외무장관 (제49차 ESCAP 총회)
- 1993. 12. 김대중 아시아·태평양재단 이사장
- 1993. 12. 김동진 육군참모총장
- 1994. 5. 한승주 외무장관
- 1994. 7. 한승주 외무장관 (아세안 PMC 및 제1차 ARF 회의)
- 1994. 9. 이영덕 국무총리 (비공식)
- 1994. 11. 이시윤 감사원장
- 1996. 2. 공노명 외무장관 (ASEM 외무장관회의)
- 1996. 3. 김영삼 대통령 (ASEM 회의)
- 1996. 5. 이양호 국방부 장관

- 1997. 10. 강경식 부총리 (아세안 재무장관회의)
- 1999. 11.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제11차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 2000. 2.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제10차 UNCTAD 총회)
- 2000. 5. 이헌재 재경장관 (ADB 총회)
- 2000. 7. 이정빈 외교장관 (ARF, PMC)
- 2000. 10.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2000. 12. 조성태 국방장관
- 2002. 6. 최성홍 외교장관 (ACD 외교장관회의)
- 2003. 5.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APEC 통상장관회의)
- 2003. 6. 윤영관 외교장관 (제1차 한·태국 공동위원회, ACD 외교장관회의)
- 2003. 8. 윤영관 외교장관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 2003. 10.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의)
- 2003. 11. 진대제 정보통신장관 (한·태국 정보통신장관회담)
- 2004. 6. 진대제 정보통신장관 (한·태국 정보통신장관회담)
- 2004. 10. 김원기 국회의장
- 2005. 1. 정동채 문화장관 (WTO 집행이사회)
- 2005. 8. 김대환 노동장관
- 2007. 9. 박명재 행정자치장관
- 2007. 9. 전윤철 감사원장
- 2008. 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제64차 ESCAP 총회)
- 2009. 2. 윤증현 기획재정장관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 2009. 2.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2009. 4.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 2009. 6. Abhisit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09. 10.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 2010. 3. 김형오 국회의장
- 2012. 2. 권재진 법무장관
- 2012. 4. 김성환 외교장관
- 2012. 6. 홍준표 대통령 특사
- 2012. 8. 권도엽 국토해양장관
- 2012. 11. 이명박 대통령
- 2013. 1.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2013. 1. 강창희 국회의장
- 2013. 5. 정홍원 국무총리
- 2013. 11. 최문기 미래창조과학장관
- 2015. 8.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2016. 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장관
- 2016. 9.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2016. 10. 황교안 국무총리
- 2016. 12. 강은희 여성가족장관
- 2017. 4. 김재수 농림수산식품장관
- 2018. 5. 백운규 산업통상자원장관
- 2018. 7. 강경화 외교장관

나. 태국 인사 한국 방문

- 1961. 9. Khoman 외무장관
- 1964. 1. Khoman 외무장관
- 1967. 4. Thanom 총리
- 1968. 3. Praphat 부총리
- 1970. 10. Prakob 대법원장
- 1975. 11. Chatichai 외무장관
- 1977. 7. Harin 상원의장
- 1977. 9. Thanin 총리
- 1979. 10. Dawee 부총리 (조문사절단)
- 1980. 4. Boontheng 하원의장
- 1980. 11. Boonchu 부총리
- 1981. 3. Khoman 부총리 (경축사절)
- 1981. 5. Pramarn 부총리
- 1981. 11. Prem 총리 (Siddhi 외상 수행)
- 1982. 5. Chan 총리실 장관 겸 하원외무위원장
- 1983. 10. Arthit 최고사령관
- 1983. 10. Prapas 외무부 부장관 (버마사건 조문사절)
- 1984. 1. Bhichai 부총리
- 1985. 4. Kosol 상무장관
- 1985. 8. Siddhi 외무장관
- 1985. 10. Ukrit 하원의장

- 1985. 10. Sommai 재무장관 (IMF 총회)
- 1985. 12. Kosol 상무장관
- 1988. 10. Siddhi 외무장관
- 1991. 11. Arsa 외무장관 (APEC 각료회의)
- 1992. 5. Vajiralongkorn 왕세자
- 1993. 3. Marut 하원의장
- 1994. 6. Chuan 총리
- 1997. 4. Michai 상원의장(IPU 총회)
- 1997. 5. Supachai 부총리 (아시아경기대회 집행위원회)
- 1998. 7. Surin 외무장관
- 1999. 4. Chuan 총리
- 2000. 3. Supachai 부총리 겸 상무장관, Tarrin 재무장관 (APEC 서울포럼)
- 2000. 10. Chuan 총리 (ASEM 정상회의)
- 2002. 1. Adisai 상무장관 (제12차 무역공동위 참가)
- 2002. 12. Korn 외교 부총리
- 2003. 8. Thaksin 총리 (PBEC 총회)
- 2005. 5. Thaksin 총리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 2005. 11. Thaksin 총리 (APEC 정상회의)
- 2006. 5. Suranand 총리실 장관
- 2008. 6. Suraphong 부총리 겸 재무장관
- 2009. 3. Kasit 외교장관
- 2009. 6 Abhisit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09. 8. Kasit 외교장관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 2010. 10. Chai 하원의장
- 2011. 10. Surapong 외교장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2. 3. Yingluck 총리
- 2012. 11. Somsak 하원의장
- 2013. 2. Yingluck 총리
- 2013. 5. Somsak 하원의장
- 2013. 8. Sirindhorn 공주
- 2013. 9. Chaturon 교육장관 (아세안 교육장관회의)
- 2014. 10. Dapong 자원환경장관
- 2014. 12. Prayut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15. 6. Tanasak 외교장관 (OSCE-아시아 회의)
- 2016. 3. Dapong 교육장관
- 2016. 3. Somkid 부총리 및 6개 부처 장관
- 2016. 6. Surasak 자원환경장관
- 2016. 8. Chatchai 농업협동장관
- 2017. 7. Arkhom 교통장관
- 2018. 2. Prawit 부총리 겸 국방장관 (평창올림픽)
- 2018. 5. Don 외교장관
- 2018. 10. Somkid 경제 부총리
- 2018. 9. Adul 노동장관
- 2019. 1. Sontirat 상무장관

4. 군사 관계

- 한-태국 양국은 태국의 6·25전쟁 참전 이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방위협력 사업을 포함한 상호 군사 교류 활발히 진행
  - 2012년 한-태국 국방협력 MOU 체결
  - 군 고위급 주요 인사, 국방대학원생, 육·해·공군 참모대생 상호 방문
  - 한-태국 해군 순항훈련단 격년 단위 방문
  - 태국 육사·공사·해사·간호사관생도의 우리 육사·공사·해사·간호사관학교에 입교, 수탁교육
  - 매년 육사 및 공사 생도 상호 교환 방문
  - 국방대, 육·해·공군 지휘참모대 상호 위탁교육 등

5. 경제·통상 관계

가. 개 관

- 양국은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과학기술·항공·해운 분야 협력 협정(또는 약정) 체결 등 경제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 확충

- 특히 태국은 한국을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통상 관계 증진 적극 희망

나. 무 역

- 양국 간 교역량이 2011년 13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

- 2018년 양국 간 교역량은 141억 달러(수출 85.0억 달러, 수입 5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9억 달러 흑자
  - 한국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록 중

- 주요 수출·입 품목(한국, 2018년 기준)
  - 수출 : 철강, 전기·전자, 기계, 플라스틱, 선박 등
  - 수입 : 전자부품, 기계, 고무, 플라스틱, 목재 등

한·태국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금 액	64.6	84.6	82.2	80.7	76.0	63.6	64.8	74.7	85.0
	증가율	42.7	30.9	-2.8	-1.8	-5.9	-16.3	1.9	15.2	13.9
수입	금 액	41.7	54.1	53.5	52.3	53.4	48.5	45.6	52.0	55.8
	증가율	28.7	29.9	-1.1	-2.3	2.2	-9.2	-6.0	14.1	7.3
무역수지		22.9	30.5	28.7	28.4	22.5	15.1	19.2	22.6	29.2
교 역 액		106.3	138.7	135.7	133.0	129.4	112.1	110.4	126.7	140.8

출처 : 한국무역협회

다. 대 태국 투자 현황

- 우리 기업의 대 태국 투자는 1988년 이래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국·베트남 등 새로운 투자대상국이 등장하면서 증가세 둔화

- 2018년 말 기준 대 태국 해외직접투자는 총 3,210건, 누적액 33.9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제39위 투자대상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
  - 태국의 대 한국 투자는 총 422건, 1.7억 달러(2018년 말 누계, 신고 기준)

한·태국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對태국 투자	금 액	280.9	131.1	177.5	110.5	111.7	110.5	3,387
	건 수	251	208	164	191	227	189	3,210
對한국 투자	금 액	3.0	1.9	51.8	4.4	7.3	11.4	173
	건 수	22	13	12	33	49	47	422

누계 : 대 태국 투자 (1980~2018), 대 한국 투자 (1962~2018)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대 태국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대 한국 투자), 신고 기준

- 업종별로 한국의 대 태국 투자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약 58.5%를 차지하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3.6%, 건설업 7.4%, 도매 및 소매업 6.4% 등으로 구성(신고 기준)
  - 제조업 중에는 1차 금속 제조(44.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7.2%)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7.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4%) 투자가 주를 이룸

라. 우리 기업 진출 현황

• 현재 영업 중인 태국 내 우리 기업 약 400개사 중 제조 기업이 210개사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의 투자에 집중

-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대기업이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이 다수 차지

마. 금융협력

• 2000년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한·중·일 간 양자 통화스와프 상호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출범

-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양국 간 1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 한·태국,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주도

※ 2006년부터 CMI를 아세안+3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다자통화스와프 협정(CMIM)으로 전환해 역내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통화 안정에 기여

- 2009년 2월 다자화 규모를 확대(800억 달러 → 1,200억 달러)하고, 한 : 중 : 일 : 아세안의 분담 비율을 16:32:32:20으로 최종 합의
- 2012년 5월 마닐라 장관회의에서 CMIM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차 규모를 확대(1,200억 달러 → 2,400억 달러)하고, 위기예방 프로그램(CMIM-PL) 도입 등에 합의
-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위한 보증기구 설립, 역내 증권예탁결제기구 설립 및 채권시장 표준화 등도 추진

• G-20 정상회의 채널을 활용한 금융협력

-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아세안 의장국 자격)이 2009년 중 G20 정상회의 참석
- 글로벌 차원의 재정확대(Global Deal)에 아세안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등, 세계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한-아세안 정책 공조

- 특히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아세안과 공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무역·투자장벽 동결(Stand-Still) 이행에 합의
-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 도입

• 한편 태국은 금융개혁 마스터플랜에 따라 2020년까지 아세안 역내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은행업 신규 영업 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태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은 현재 없는 상황

바.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 태국 정부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요 의제로 추진 중
- 특히 연평균 4.2%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70% 이상인 가스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등 전력원 다변화 추진

• 태국 정부는 2019년 1월 기존 전력발전계획(Power Development Plan 2015) 수정안(PDP 2018(2018-2037))을 발표하고 총 전력 공급 능력을 당초 2036년 기준 70,335MW에서 2037년 기준 77,211MW로 확대할 예정
- 세부적으로 기존 목표인 PDP 2015 대비 천연가스 비중이 37%에서 53%로 높아진 반면 석탄 사용 비중은 23%에서 12%로 감소, 원자력 발전이 제외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종전과 동일한 20% 유지

• 태국 정부는 대체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Plan, AEDP, 2012-2021)에 따라 202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전기 : 13,927MW, 열 : 9,800KToe)하는 것을 추진 중이나, 2037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대체에너지 개발 계획 개정 작업 준비 중

사. 노동협력

- 2018년 누계 약 8.6만 명의 태국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 내 취업(16개 송출국 전체 65만여 명의 13.3%)
  - 2018년 말 기준 약 2.5만 명이 한국 내 기업에서 근무
  - 2018년 고용허가제 입국 태국 근로자는 6,195명으로 전체 송출국 인력(53,855명)의 11.5%
  - 2018년 말 기준 EPS 태국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3.5%로 16개국 전체평균 17.0%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6. 문화·관광 관계

가. 문화 교류

-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서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음반 및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민간 차원에서 동 분야 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

- 2002년 월드컵 등을 계기로 한국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한국 문화 및 한국어 수요가 늘어나는 등 한류 확산 중
  - 2005년 7월 지상파 TV CH5에서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MBC <별은 내 가슴에>를 방영한 이래 지상파 및 케이블 TV 등에서 2015년 말까지 200여 편 방영
  - 방송 진출 형태도 예능 프로그램 포맷 수출, K-Pop 가수의 독점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제작, 합작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2016년 10월 푸미폰 국왕 서거로 K-Pop 공연 및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은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으나, 한류의 인기는 지속

• 출판 분야에서는 특히 아동용 학습 인쇄 만화가 태국 현지에서 오랜 기간 인기

- 태국의 '나미북스(Nameebooks)'가 한국의 아이세움에서 출판한 '살아남기 과학 만화시리즈'를 2004년 태국에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산 학습만화의 인기가 시작
- 현지 어린이들이 어려워하는 과학, 수학, 영어 분야의 학습 만화들이 잘 발달해 있고 태국 부모들이 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 컬러로 출판되어 어린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3년 7월 한국문화원 개원 이래 양국 간 국제문화제 참가, 방송영상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사업 협력, 태권도 등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교류 사업 진행

- 2018년 한·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저명 공연단(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태국 방문(9월), 문화공연·관광·한식 등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안녕 타일랜드, 싸왓디 코리아」 행사(10월) 등 다양한 수교 기념 행사 개최
- 지방 소도시로 찾아가는 한국문화 카라반 진행
- 연중 전통에서 현대까지 아우르는 전시 기획·운영
- 현지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한국 문화 강좌 운영

※ 한국어, 한국 요리, K-pop 댄스 및 노래, 한국식 화장법 등

- 태권도 지원을 통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태권도 저변 확대(국기원 태권도 사범 파견, 태국 청소년 태권도 정규 수업 사범 지원 및 태권도 용품 보급, 승급 심사 개최, 6·25전쟁 참전부대 태권도 강좌 지원 등)

※ 태권도는 태국 내 인기 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태권도장 1,500개 이상, 사범 수 2천 명 이상 보유, 태국 태권도는 세계 랭킹 10위권(역대 올림픽 태권도 4회 연속 메달 획득)

나. 언론 분야 교류

- 방콕 주재 한국 특파원 : 연합, KBS 2개사 방콕 특파원 파견 중
- 방콕포스트와 코리아헤럴드, KBS와 채널9(MCOT), MBC와 Thai PBS 간 업무제휴 체결
- 서울 주재 태국 특파원 : Bangkok Post 등 동경 상주 특파원이 겸직
- 방콕포스트와 코리아헤럴드, MBC와 NBT 등 교류협정 체결 중
- 아시아 언론 세미나, 아시아 미디어포럼 등 언론 분야 국제행사를 통한 교류

다. 관광 교류

- 태국은 중국, 일본 등에 이은 한국의 주요 해외여행 대상국으로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기준 양국 상호 방문 관광객 규모는 235만여 명
- 태국 방문 한국인 수(약 180만 명, 3위), 한국 방문 태국인 수(약 56만 명, 6위)

한-태국 인적 교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태국→한국	469,619	375,021	474,262	503,777	565,784
한국→태국	1,122,566	1,372,995	1,464,218	1,709,070	1,796,596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태국 관광국

- 현재 방콕, 치앙마이, 푸껫 등 태국 주요 도시와 인천(서울), 부산 등 한국 도시 간 정기 항공노선 운행 중

- 한국-태국 운행 항공편 수 : 양국 8개 항공사(한국 6개, 태국 2개)에서 주 약 450회 이상 직항 운영

•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운영 중

7. 교육 협력 관계

가. 고등교육 교류

• 대학 간 학술교류 협력 및 대학생 상호 교류 추진

-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이 태국 대학과 고등교육 협력, 학술 협력, 학생 교류 및 봉사 활동 실시

•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교류 현황

- 태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 : 377명 (2018년 1학기 기준)
- 한국 내 태국인 유학생 수 : 648명 (2018년 4월 1일 기준)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및 우수 학생 방한 연수 지원

- 태국의 우수한 미래 인재를 한국 정부 초청 대학원 장학생, 학부 장학생으로 선발해 한국 유학 기회 제공 및 한국 방한 연수 기회 제공

• 한국학 연구 지원

- 국제교류재단, KOICA,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통해 태국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운영 및 학술 세미나 지원

▲객원교수 인턴·KOICA 한국어 봉사단원 파견·교수 고용 지원 ▲한국학 전공교수·학생 한국 유학 및 장학금 지원 ▲한국 주요 대학과의 교류협정 지원 등 다양한 육성책 추진

나. 한국어 교육 지원

•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지원

-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원 개원, 한국어 교육 확산 지원 (2012~)
- 태국한국교육원 자체 개발 중등학교용 공식 한국어 교과서 1~6권 완간(2018.10.9.), 태국 중등학교 교과서로 사용 중
- 공립 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학교(2019.6.) : 133개교, 학생 40,583명, 교사 205여 명 (태국인 교사 160명, 한국인 파견 교사 45명)
  ※ 전 세계 초·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13만여 명 중 태국이 최대 규모
- 태국 대학 입학시험 제2외국어 과목(PAT7.7)에 한국어 채택 결정(2016. 6.9.), 태국 대학 입학시험에 한국어 과목 최초 시행(2018.2.27.)
- 2011년부터 태국 교육부 요청으로 태국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인 교사 파견(2019년 : 45개교 45명 파견)
- 태국 정부의 태국인 한국어 교사 특별양성 계획에 따라 2014~2017년간 매년 35명, 총 140명의 한국어 교사가 한국 내 연수(4개월)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019년 현재 특별양성과정 1~4기 교사 전원 임용

• 대학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2019)

- 50여 개 대학에 한국어·한국학 과정 개설 (교양과정 포함)
- 한국어 학부 전공 과정 개설(12개 대학) : 송클라 빳따니캠퍼스, 쏭클라 푸껫캠퍼스, 씨나카린위롯, 나레수안, 부라파, 씰라빠껀, 마하사라캄, 상공회의소대학, 치앙마이 랏차팟, 치앙라이 랏차팟, 우따라딧 랏차팟, 쭐라롱껀
- 한국어 학부 부전공 과정 개설(6개 대학) : 치앙마이, 쏭클라 핫야이 캠퍼스, 까셋삿, 탁신, 랑싯, 탐마삿

- 한국어 석사과정 개설(1개 대학) : 쭐라롱껀
- 한국어 학습자 역량 강화, 학습자료 지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한국학 학술회의 지원 등

다. 기타 교육 교류

• 다문화 대상 국가와의 교사 교류 사업을 통해 한-태 초·중등교사 교류 추진(2016~)

- 한국 초·중등교사 16명 태국 학교 근무 및 수업(2019. 4.~8.)
- 태국 초·중등교사 16명 한국 학교 근무 및 수업(2019. 9.~11.)

• 한-태 직업교육 교류 기반 마련(2016~)

- 2016년 3월 태국 교육부장관 방한 및 한국 교육부총리 면담 후속 사업으로 태국 교육부 직업교육위원회와 함께 IT, 미용, 관광(조리 포함) 분야 태국 직업학교에 한국인 교사 파견, 교육 활동 실시(2018년 4개교 8명 파견)

8. 재외국민·영사 관계

가. 현 황

- 2018년 12월 기준, 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 수는 약 20,200명

  ※ 방콕 및 인근 지역 12,200명, 치앙마이 4,000명, 촌부리·라용 3,000명, 푸껫 750명

  ※ 시민권자를 제외한 재외국민 수는 20,123명

- 대부분이 여행업·요식업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한국계 투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본국과도 사업상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

- 자영업자 중 일부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태국 국적 취득

태국 내 체류 동포 수(2018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 학 생	시민권자 (외국 국적 동포)	합 계
128	16,107	3,888	77	20,200

출처 :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나. 동포사회 형성 과정

- **제1세대**는 동포사회 원로들로서 2차 대전 중 일본군에 징용되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 진출 후 태국에 정착하였고, 주로 무역·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현재 생존자가 거의 없음.

- **제2세대**는 베트남전이 끝난 후 태국에 이주·정착한 동포들, 중동건설붐과 함께 태국 인력 송출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착한 동포들로 구성, 현재는 주로 무역업, 여행업, 요식업에 종사

- **제3세대**는 198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해외여행 개방에 따라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산업으로 진출한 경우와 한국 기업의 태국 투자 증가에 따라 파견된 상사 지사원 및 투자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체류 교민의 대부분을 차지

- **제4세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태국에 진출하여 주로 관광 및 여행 가이드로 활동

다. 동포단체 현황

1) 재태국 한인회

- 창립 : 1964년

- 회장 : 황주연(제31대)
  ※ 촌부리 지회장 : 김동민

2) 지역 한인회 지회

- 치앙마이 한인회장 : 박용빈

- 치앙라이 한인회장 : 조태현

- 푸껫 사무국장 : 전동열 (현재 한인회장 공석)

라. 동포학교

1) 방콕한국국제학교

- 2001년 3월 30일 개교
- 태국 내 최초 전일제 한인학교로 2002년 3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 취득
- 2018년 6월 기준 학생 88명(초등 2명, 중등 14명, 고등 32명), 교사 24명

2) 토요한글학교

- 방콕·푸껫·치앙마이 지역의 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한글학교이며, 현재 5개 토요한글학교 운영

9. 한-태국 조약 체결 현황

협 정	서명일	발효일
무역협정	1961. 9.	1961. 9.
무역전시품면세통관협정	1963. 5.	1963. 5.
항공협정(1969.11., 1970.5., 1978.12., 1989.10., 1991.10. 개정)	1967. 7.	1968. 3.
관용여권 사증 및 수수료 면제협정	1967. 9.	1967. 10.
이중과세방지협정(2006.11. 개정)	1974. 8.	1977. 10.
운수소득면세협정	1981. 1.	1981. 1.
사증면제협정	1981. 11.	1981. 12.
과학기술협력협정	1985. 6.	1985. 8.
투자보장협정	1989. 3.	1989. 9.
정부간공동위원회설립협정	1998. 7.	1998 .7.
범죄인인도조약	1999. 4.	2001. 2.
해운협정	2002. 5.	2002. 8.
형사사법공조조약	2003. 8.	2005. 4.
문화·교육협력협정	2004. 8.	2004. 8.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 가입의정서	2009. 2.	2010. 1.
수형자 이송조약	2012. 2.	2012. 12.
민사상사 사법공조 협약	2013. 5.	2015. 4.



IX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2. 정치·외교 관계
3. 경제·통상 관계
4. 협정 체결 현황
5. 주요 인사 교류

1. 기본 관계

- 1975. 5. 태국-북한 외교 관계 수립
- 1979. 12. 주태국 북한 통상대표부 개설
- 1985. 7.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태국 겸임
- 1991. 3. 주태국 북한대사관 개설 (필리핀 겸임)

※ 주북한 태국대사는 주중국 태국대사가 겸임

※ 태국은 북한과 1975년 국교를 수립했으나 북한의 대사관 개설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1990년대 초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1991년에 북한대사관 설치 허용

※ 現 김제봉 대사는 2018년 10월 부임 (2019년 3월 신임장 제정)

2. 정치·외교 관계

가. 개 관

- 북한이 1990년대 초 태국 왕실 및 군부 주도의 농·어촌 개발 사업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왕실·군부 인사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 지속
  - 2007년 북한 수해 발생 시, 푸미폰 국왕 명의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 위로전 발송

- 태국 주재 북한공관원 홍순경 망명사건(1999.3.) 이후 관계가 일시 소원해졌으나,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가입(2000.7.)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계 회복

-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미사일 개발 및 미얀마와의 군사협력 등으로 태국 정부 및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

-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태국은 2019년 6월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의장 성명 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미국·중국의 대화 촉진 노력을 환영하고 아세안의 기여 의향을 부각하면서도 CVID 이행 필요성을 강조

나.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2002.2.), 백남순 외무상(2005.7.) 및 김영일 외무성 부상(2008.11.), 이수용 외무상(2015.8.) 등 북한 고위인사의 태국 방문이 있었으며, 태국에서는 칸타티 태국 외교장관(2005.8.) 및 파닛 외교부 차관(2009.7.), 쑤나이 외교위원장(2012.9.), 돈 외교부 부장관(2015.5.)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으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2016.3.) 이후 고위급 교류 중단

- 태국 외교부 실무대표단(2004.6.), 여당 대표단(2004.7.), 태국-북한 친선협회 대표단(2007.12.), 총리실 등 공보관계관(2008.10.), 프어타이당 대표단(2012.9.), 외교부 공보국 대표단(2014.8.), 외교부 동아시아국장(2013.9. 및 2015.9.) 등 태국 실무 대표단의 방북은 일부 지속

다. 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 2004년 2만 5천 달러 현금 지원 및 쌀 5천 톤 별도 지원(용천 사고 긴급 지원)

- 2007년 9월 북한 수해 관련, 2만 달러 지원

• 2012년 10월 북한 홍수 피해 계기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2013년 2월 북핵 실험 이후 보류 결정

• 2013년 8월 대북 쌀 지원 결정 백지화

라. 태국 내 친북단체

• 태국-북한 친선협회 : Chanai Lo-ngoen 회장 등 10여 명 활동 중

• 주체사상연구회 : Songchit 회장 등 약 10여 명 활동 중

3. 경제·통상 관계

가. 교역 현황

• 1990년대 연평균 4천만 달러 수준에서 2007년 2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2008년 0.7억 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 감세 유지, 2009년 0.44억 달러, 2010년 0.5억 달러, 2011년 0.36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

• 태국-북한 간 교역은 2012년 0.62억 달러, 2013년 1.13억 달러, 2014년 1.26억 달러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지속 하락 추세

• 2018년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 영향으로 총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

- 북한은 태국의 수출 181위, 수입 216위권 교역 상대(2018년 말 기준)

태국의 對북한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5.
총 교역액	62.2	113.7	126.3	82.0	49.9	2.2	0.8	0.48
수출액	40.3	99.8	107.2	75.0	46.9	1.7	0.5	0.27
수입액	21.9	13.9	19.1	7.0	3.0	0.5	0.3	0.21
무역수지	18.4	85.9	88.1	68.0	43.9	1.2	0.2	0.06

출처 : 태국 상무부

- 방콕에는 무역참사부·해운대표부를 포함 10여 개 지상사가 상주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지상사는 태국과의 직접 교역은 물론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제3국 중계무역 수행 중
  - 태국산 천연 라텍스·음료수 수입, 북한산 소주 수출 등 직접 교역 실시
  - 스리랑카 및 몰디브에 북한 및 태국산 시멘트 수출
  - 중국에 네팔산 동충하초 판매

나. 태국-북한 쌀 거래 내용

- 태국은 1993~2002년간 쌀 75만 톤을 북한으로 수출했으나 대부분의 쌀 대금은 미변제
  - 2001년 12월 쌀 수입대금 연체 금액 1억 2천만 달러에 합의
  - 2002년 7월 상기 연체금 중 650만 달러 변제
  - 2016년 말 3억 753만 달러 체납

- 태국은 계기 시마다 북한에 상기 쌀 부채 대금 상환을 요구 중이나 북한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차선책으로 현금+현물 상환에 합의(2015.4.)한 바 있고, 이후 진전 사항 별무

다. 태국의 대북 통신 투자 내용

- 태국의 Loxley Pacific 그룹이 투자한 동북아전화통신회사(NEAT&T)가 나진·선봉 지역에 유럽통신방식(GSM)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해 평양·개성·함흥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적이 있으나,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고, 이집트 기업 진출로 2010년 중단
  - Loxley Pacific 그룹은 1995년 9월에 북한 통신망 개발권(27년) 획득
- Loxley Pacific 그룹은 평양 내 인터넷망 구축에 참여하여 사업 진행 중

4. 협정 체결 현황

- 1978. 12. 무역협정
- 1982. 2. 체신·우편협정
- 1993. 3. 항공협정 (1993년 4월부터 고려항공 평양~방콕 간 전세기 취항, 2017년 4월 고려항공 태국 사무소 운영 중단)
- 2001. 4. 쌀 부채 해결 위한 양해각서
- 2002. 3.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문화협력협정, 뉴스교환협정
- 2004. 1. GSM 통신협정

5. 주요 인사 교류

가. 북한 인사 태국 방문

- 1976. 4. 허담 외교부장
- 1979. 5. 허담 외교부장
- 1982. 2. 이종옥 총리
- 1982. 11.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의장
- 1987. 4. 김영남 외교부장
- 1987. 10.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 1988. 10. 김영남 외교부장
- 1988. 1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 1990. 12.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 1991. 1. 연형묵 총리
- 1991. 6. 김달현 부총리
- 1992. 9. 김광진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 1993. 10.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 1993. 11. 장철 부수상
- 1994. 3. 김창규 외교부 부부장
- 1995. 3. 이성대 외교경제위원장
- 1995. 7. 최우진 외교부 부부장
- 1998. 8. 박성철 부주석

- 1999. 10. 강수학 보건상
- 2000. 2. 강정모 무역상
- 2000. 7. 백남순 외상
- 2000. 10.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 2001. 12. 리광근 무역상
- 2002. 3.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2002. 6. 리광근 무역상
- 2003. 1. 리금범 체신상
- 2005. 7. 백남순 외무상
- 2008. 11. 김영일 외무성 부상
- 2015. 3. 안정수 경공업상
- 2015. 3. 이수용 외무상
- 2017. 4. 박영국 외무성 부상
- 2017. 9.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 2018. 5. 최희철 외무성 부상

나. 태국 인사 북한 방문

- 1979. 9. 분텡 하원의장
- 1980. 10. 티엔 하원 제2부의장
- 1984. 12. 비차이 부총리
- 1987. 5. 갈랴니 공주 (푸미폰 국왕의 누이)
- 1987. 8. 시티 외교장관

- 1988. 9. 우크릿 하원의장
- 1989. 7. 폰 총리실 장관
- 1990. 10. 피칫 최고사령부 부사령관
- 1991. 3. 씨린톤 공주
- 1992. 3. 와치라롱껀 왕세자 (現 국왕)
- 1993. 4. 마룻 하원의장
- 1993. 6. 와치라롱껀 왕세자 (농업장관 Nipon 등 수행)
- 1993. 8. 치나웟 총리실장관
- 1993. 9. 위짓 국방장관
- 1994. 6. 미차이 상원의장
- 1995. 2. 아팃 보건장관
- 1995. 4. 우타이 상무장관, 수틴 하원 외무위원장
- 1996. 10. 프라판 상원 제2부의장
- 1997. 3. 소폰 하원 제1부의장
- 2001. 10. 크라세 총리실 장관
- 2001. 11. 프라츄압 무역대표
- 2002. 4. 크라세 총리실 장관
- 2002. 6. 우타이 하원의장
- 2005. 8. 칸타티 외교장관
- 2009. 7. 파닛 외교부 차관
- 2012. 9 . 쑤나이 외교위원장
- 2015. 5. 돈 외교부 부장관



X

부 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2. 왕실 관계
3. 내각 명단
4. 역대 주태국 대한민국 공관장
5. 역대 주한 태국 공관장
6.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7. 주한 태국 대사관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가. 국 왕

성 명	와치라롱껀 국왕 (H. M. King Maha Vajiralongkorn Phravajiraklaochaoyuhua)	
생년월일	1952년 7월 28일	
학 력	• 1976 호주 캔버라 소재 왕립국방대학 졸업 • 1977 태국 왕립 육군지휘참모대학 졸업 • 1982 수코타이탐마티랏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0 국방대학교 수료	
경 력	• 1972 왕세자 책봉 • 1975 육군정보부 장교 • 1976 호주 퍼스 주둔 특별공군연대 파견근무 • 1978 국왕경비대장 • 1992 육군대장 겸 왕실근위사령관 • 2016. 12. 국왕 즉위 • 2019. 5. 대관식	
특별활동	왕궁 내 유치원 설립 등 왕실 근위 경호대원 및 가족의 복지에 관심	
명예학위	• 1980 탐마쌋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 1987 쭐라롱껀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 1989 람캄행대학교 명예법학 박사 등	
명예자격	• 태국아마추어 사이클협회 명예회장 • 태국펜싱협회 명예회장 • 태국 Din Daeng 청소년재단 명예회장 • Maha Vajiralongkorn 재단 명예이사장	
한국과의 관계	• 1981. 7. 전두환 대통령 태국 방문 시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 1992. 5. 공식 방한(정부 귀빈)	

나. 왕 비

성 명	수티다 왕비 (H. M. Queen Suthida Bajrasudhabimalalakshana)	
생년월일	1978년 6월 3일	
학 력	• 2000 Assumption University 신문방송학 학사 졸업	
경 력	• 2000 JAL 항공사 승무원 • 2003 타이항공 승무원 • 2010 왕실 근위대 작전장교 • 2013 왕실 근위대 왕세자 특별근위대 특별군인 • 2013 왕실 근위대 사관학교 지휘관(소장) • 2014 왕실 근위대 사무처장(소장) • 2017 왕실 근위대 부사령관(대장) • 2019. 5. 1. 와치라롱껀 국왕과 혼인	
특기사항	• 평민 출신의 왕비 • 2016년에 왕족 성씨 '와찌라롱껀 나 아유타야' 수여 • 타이항공 승무원 시절 와치라롱껀 국왕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6년 디빵꼰 왕자(3번째 부인의 아들)의 생일과 2016년 푸미폰 선왕의 장례식에 참석 • 태국 공군에서 공군 비행기 CT-4E, PC-9 조종 훈련 수료 후, 독일에서 조종 훈련 프로그램 수료하여 유럽연합 조종사 자격 획득 • 주요 훈장 : 2019 짜끄리 왕조 훈장 Knight 2018 쭐라쩜끌라오 훈장 Knight Grand Cross 2017 백상 훈장 Knight Grand Cordon	
방한 경력	없음	

다. 시린톤 공주

성 명	시린톤 공주 (H. R. H. Princess Maha Chakri Sirindhorn)	
생년월일	1955년 4월 2일	
학 력	• 1977 쭐라롱껀대학교 졸업(역사 전공) • 1979 씰라빠껀대 대학원 졸업(산스크리트-크메르어 석사) • 1981 쭐라롱껀대 대학원 졸업(팔리-산스크리트어 석사) • 1986 시나카린위롯대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주요 사회활동	• 선대 국왕 따라 농촌개발사업 등 Royal Projects 추진 적극 참여 • 태국적십자사 부총재 • Sai Jai Thai Foundation 회장 (국토방위 희생자 및 부상자 지원 활동) • 태국변호사협회 명예회원 • 태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	
취 미	• 언어학 및 공학 연구 • 노래 및 태국 음악 연주	
특기사항	• 2010년 왕실 인사로는 최초로 방콕 한인타운 방문 • 한국 음식·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성취욕과 국가관 등을 높이 평가 • 쭐라롱꼰대학교 한국학대학원 교과과정의 설립을 지시 • 늘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가족 관계	미혼	
방한 경력	1991.3., 2004.10., 2013.8.	

라. 쭐라폰 공주

성 명	쭐라폰 공주 (H. R. H Princess Maha Chulabhorn Krom Phra Srisavangavadhana)	
생년월일	1957년 7월 4일	
학 력	• 1979 까셋삿대학교 졸업(화학 전공) • 1985 마히돈대 대학원 박사 졸업(유기화학 전공)	
주요 사회활동	• 마히돈대학교 생화학과 객원 교수 • 쭐라폰연구소(Chulabhorn Research Institute) 소장 • 영국왕립학회 명예회원	
특기사항	• 과학자로서 환경·보건 및 개도국 암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뇌졸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	
가족 관계	남편(이혼), 자녀 2명(2녀) • H. R. H. Princess Siribhachudabhorn • H. R. H. Princess Aditayadornkitikhun	
방한 경력	• 태국쭐라폰연구소-광주과학기술원 간 기술협력 MOU 서명(2007) • 광주과학기술원 초청(2008) • 환경 관련 국제회의 참석(2010)	

마. 총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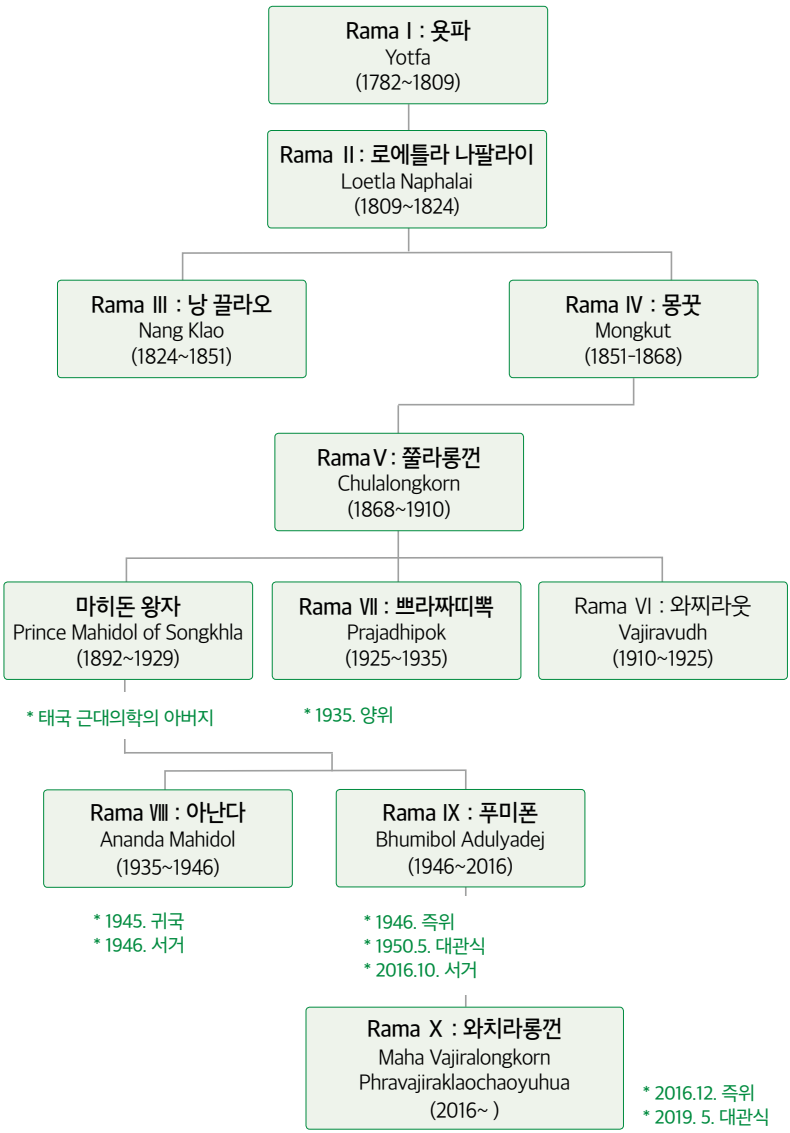
성 명	쁘라윳 총리 (Prayut Chan-o-cha)	
생년월일	1954년 3월 21일	
학 력	• 1971 예비사관학교 졸업(12기) • 1976 육군사관학교 졸업(23기) • 1988 육군 지휘참모대학 졸업(63기) • 2007 국방대학교 졸업(20기)	
경 력	• 1976~2003 보병 2사단 제21연대(6·25전쟁 참전부대) • 1998~2003 보병 2사단 제21연대 연대장 • 2003~2006 보병 2사단 부사단장, 사단장 • 2006~2008 1지역 부사령관, 사령관 • 2008~2009 육군 참모장 • 2009~2010 육군 부총사령관 • 2010~2014 육군 총사령관(2014.9.30 전역) • 2014~2019 총리 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의장 • 2019. 6.~ 총리(재선출) * 국방장관 겸임	
특기사항	• 가족 사항 : 부인(나라펀), 2녀 • 취미 : 골프 • 6·25전쟁 참전 부대 21연대 출신으로 국왕에 대한 강한 충성심 보유 • 2010년 봄, 레드셔츠 시위 진압(사망 91명, 부상 2,000여 명 발생) 당시 육군 부총사령관 • 명석하고 부지런하나 급하고 직설적인 성격 • 훈장 : 백상대수장(2010), 왕실대십자장 등	
방한 경력	• 2011. 6. 육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방한 • 2014.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방한	

바. 외교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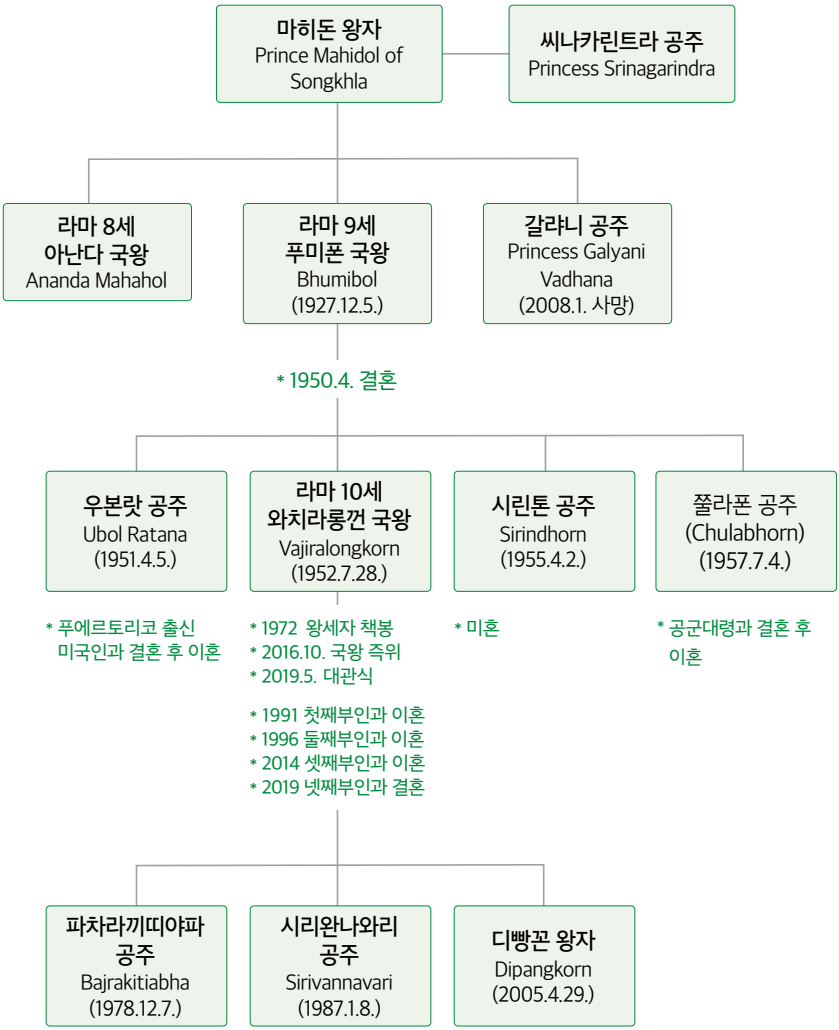
성 명	돈 외교장관 (Don Pramudwinai)	
생년월일	1950년 1월 25일	
학 력	• UCLA 정치학과 졸업 • UCLA 국제관계학 석사 • 미국 터프츠대학교 플레처전문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 태국 국방대학교 졸업(6기)	
경 력	• 1974 외교부 입부 • 1985~1988 동남아시아국 과장 • 1991~1992 외교부 사무차관실 대사 • 1992~1994 동아시아국 국장 • 1994~1999 주스위스 대사 • 1999~2001 외교부 대변인 • 2001~2004 주중국, 북한, 몽골 대사 • 2004~2007 주벨기에, 룩셈부르크, EU 대사 • 2007~2009 주유엔대표부 대사 • 2014~2015 외교부 부장관 • 2015. 8.~ 외교부 장관	
특기사항	• 가족 사항 : 부인(Narirat), 1남 • 훈장 : 백상대수장(2003)	
방한 경력	• 1992, 2018.5월 ※ 방북 : 수차례(가장 최근 : 2015.5.)	

2. 왕실 관계

가. 짜끄리(Chakri) 왕조 계보



나. 와치라롱껀 국왕의 직계 가족



3. 내각 명단(2019.7.10. 국왕 승인)

부 처	성 명
총 리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부총리	1) 국방·내무 : 쁘라윗 웡수완 (Prawit Wongsuwan) 2) 사회·교육 : 쭈린 락사나위싯 (Jurin Laksanabisit) 3) IT·관광 : 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 4) 경제·상무 : 솜킷 짜뚜시피탁 (Somkit Jatusripitak) 5) 법무·행정 : 위싸누 크르어응암 (Wissanu Krea-ngam)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테완 립따판롭(Tewan Liptapanlop)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아누퐁 파오찐다(Anupong Paochinda)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웃따마 싸와나욘(Uttama Savanayana)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관광체육부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피팟 랏차낏쁘라깐 (Pipat Ratchakitprakarn)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잇티폰 쿤쁠름(Ittipol Khunplome)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풋티퐁 뿐나깐 (Buddhipongse Punnakanta)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수윗 메신시 (Suvit Maesincee)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낫타폰 팁수완(Nataphol Teepsuwan)

부 처	성 명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솜삭 텝수틴(Somsak Thepsuthin)
농업협동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찰름차이 시언 (Chalermchai Sri-on)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와라웃 씰라빠아차 (Varawut Silpa-archa)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수리야 쯩룽루엉낏 (Suriya Juangroongruangkit)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쭈린 락사나위싯 (Jurin Laksanabisit)*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손티랏 손티찌라웡 (Sontirat Sontijirawong)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사회발전인간안보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쭈띠 끄라이릇 (Chuti Krairerk)
노동부(Ministry of Labour)	짜뚜몽콘 쏜나꾼 (Chatumongkol Sonakul)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삭사얌 칫첩(Saksayam Chidchob)

* 총리 또는 부총리 겸직자

4. 역대 주태국 대한민국 공관장

- 1959. 2. 최덕신 공사(겸임)
- 1960. 8. 유재흥 초대 대사
- 1963. 12. 이동원 제2대 대사
- 1964. 11. 장성환 제3대 대사
- 1968. 4. 한표욱 제4대 대사
- 1971. 3. 임윤영 제5대 대사
- 1974. 5. 천병규 제6대 대사
- 1976. 8. 박 근 제7대 대사
- 1979. 10. 김인권 제8대 대사
- 1981. 2. 권태웅 제9대 대사
- 1985. 3. 김좌수 제10대 대사
- 1989. 3. 정주년 제11대 대사
- 1992. 8. 한탁채 제12대 대사
- 1994. 2. 정태동 제13대 대사
- 1997. 3. 김내성 제14대 대사
- 1999. 3. 김국진 제15대 대사
- 2002. 3. 최 혁 제16대 대사
- 2004. 1. 윤지준 제17대 대사
- 2006. 3. 한태규 제18대 대사

- 2008. 10. 정해문 제19대 대사
- 2011. 9. 임재홍 제20대 대사
- 2012. 10. 전재만 제21대 대사
- 2015. 11. 노광일 제22대 대사
- 2018. 11. 이욱헌 제23대 대사

5. 역대 주한 태국 공관장

- 1961. 8. Chan Ansuchots 초대 대사
- 1965. 5. Yuad Loesrit 제2대 대사
- 1968. 9. Chote Klongvicha 제3대 대사
- 1972. 9. Payong Chutikul 제4대 대사
- 1975. 7. Suban Sawetamal 제5대 대사
- 1978. 11. Asa Boonyapratuang 제6대 대사
- 1982. 11. Kamtorn Udomritthiruj 제7대 대사
- 1986. 11. Suchati Chuthasmit 제8대 대사
- 1991. 2. Chuchai Kasemsarn 제9대 대사
- 1994. 12. Thawatjai Thavisri 제10대 대사
- 1997. 9. Vichai Vannasin 제11대 대사

- 2001. 9. Somboon Sangiambut 제12대 대사
- 2004. 3. Vasin Teeravechyan 제13대 대사
- 2009. 2. Theerakun Niyorn 제14대 대사
- 2009. 10. Chaiyong Satjipanon 제15대 대사
- 2012. 4. Kittiphong Na Ranong 제16대 대사
- 2014. 2. Kulkumut Singhara Na Ayudhaya 제17대 대사
- 2016. 10. Sarun Charoensuwan 제18대 대사
- 2018. 2. Singtong Lapisatepun 제19대 대사

6.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i-Khwang, Bangkok 10310, Thailand
- 전화 : +66-2-247-7537~41
- 근무시간 : 08:30~12:00, 13:30~17:00(월~금)
- 시차 : -2시간

7. 주한 태국 대사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7
- 전화 : (02)795-3098, (02)795-0095
- 근무시간 : 09:00-12:00, 13:00-17:00(월-금)

태국 개황

발 행 일 2019년 8월
발 행 처 외교부 동남아2과
편집디자인 나무와숲 (02-3474-1114)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ISSN 2005-4025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http://www.mofa.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72-14

ISSN 2005-4025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